

한국 서사와 걸쳐 매핑

Korean Narrative and Culture Mapping Guidebook



3. 충청북도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Story and Cultural Resource of Chungcheongbukdo

교수자: 김세익	
1차시	학습목표
2차시	청주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3차시	진천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4차시	충주와 제천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5차시	보은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K-CULTURE-STORY CONTENTS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강의개요

주차명	충청북도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학습목표	■ 충청북도 권역의 누적된 서사의 기원과 맥락을 알고 오늘날까지 현존하며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각 지역의 서사를 이해하는 것 ■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고 충청북도의 문화적 지형도를 직접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강의방식	☒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비디오 ☒ PPT슬라이드와 오디오 ☐ 인터뷰 촬영 ☐ 대화 촬영 ☐ 현장 촬영	
강의언어	☒ 한국어 ☐ 영어 ☐ 기타()	
자막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수어 ☒ 기타 (베트남어)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학습목표	학습목표와 핵심도시(지역), 핵심질문 소개
2	청주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직지심체요절,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청남대, 상당산성
3	진천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한국의 스포츠와 선수촌 문화
4	충주와 제천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장미산성, 충주고구려비, 탄금대와 제천의 의림지
5	보은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법주사, 정이품송, 삼년산성
학습활동	☒ 동영상 강의 ☒ 읽기 자료(pdf 등) ☒ 퀴즈 등 연습문제 ☐ 토론/토의 ☐ 시연 및 현장 방문 ☐ 실습(실험, 시뮬레이션) ☐ 개인 과제 ☐ 협력 과제 ☒ 기타(간접 탐방 -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 및 위성 사진 자료 검색)	



충청북도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 Korean Script

1차시 | 학습목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문화콘텐츠적인 관점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의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경희대학교 김세익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서사와 걸쳐매핑의 세 번째 시간으로 충청북도에 산재한 이야기와 문화자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세 개의 도를 묶어서 삼남 또는 삼남지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삼남 지방은 전통적인 한반도 남부지역의 범위와 거의 겹치고 면적상으로도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한반도를 북부지방과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나눌 때 남부지방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 삼남지방이라는 표현이 활성화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한반도가 남북분단을 맞이한 이후에는 이 삼남지방이라는 표현이 잘 쓰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분단 이후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이 삼남지방이 실질적 국토의 약 70%이상을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비중이 커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는 각 도를 따로따로 부르는 경향이 강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반영해서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수도권-지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삼남지방 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은 예로부터 기후가 따뜻하고 너른 평야지대가 많아서 농사가 잘되던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삼남이 풍년이면 천하는 굶주리지 않는다, 라는 속담까지 생길 정도였죠. 그중에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살펴보고자 하는 충청도는 서해바다를 끼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남부 지역입니다.

1주차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각 지역을 이르는 별칭으로 호남, 영남과 같은 표현을 잠깐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 호남, 영남이라는 표현 말고 이 지역 충청도를 이르는 말로 호서라고 하는 현재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1주차 때에 호남이라는 명칭은 호수의 남쪽 지역이라는 의미인데 이때 기준이 되는 이 호수라는 것은 김제의 벽골제로 생각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호서 역시 호수의 서쪽이라는 의미인데요. 재미있게도 호서의 기준이 되는 호수로는 제천의 의림지를 많이 꼽고 있습니다. 벽골제와 의림지는 둘 다 농업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저수지이고 전근대시기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 명성을 익히 들어보았을 만큼 커다란 규모의 저수지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업시간을 통해 각각 살펴보겠지만 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행정적으로 각각 남도와 북도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와는 달리 충청도는 남도와 북도가 이 남북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거의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동서 분할이지 남북 분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도의 이름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로 확정된 것은 사실 다른 도와의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충청도는 애초에 동서로 긴 영역이어서 동서 분할로 나뉜 것이고요.

남도와 북도의 구분은 한반도 전역을 13개 도로 구분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처음 이뤄졌던 1896년 대한제국 당시에 충청도의 대표적인 도시들인 충주시와 강경읍의 위치를 기준으로 충북과 충남의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잠시 첨언을 하고 넘어가자면 전통적으로 이 조선에서는 전국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의 8개 도로 구분해서 행정조직을 운영해 왔는데요. 1896년에 이르러 기존의 8도 중 경기, 강원, 황해를 제외한 나머지 도를 남북도로 나누어서 총 13개 도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분단 이후 한국에서는 본래 전라도에 속해 있던 제주도를



별도의 도로 지정하였고 북한에서는 황해도를 남북으로 나누고 자강도와 량강도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의 체제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에도 8개 도가 있고 북한에도 8개 도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전국을 지칭할 때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이 팔도라는 말을 오늘날에도 자주 쓰는 편입니다. 한반도 전역을 지칭하기도 하면서 대한민국 전역을 지칭하기도 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충청도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만도 거의 스무 차례 가까이 바뀌어왔는데요. 주로 충주, 청주, 공주, 홍주를 중심으로 충공도, 청공도, 청흥도, 충흥도, 공청도 등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조합이 번갈아 가며 뒤바뀌다가 최초의 명칭인 충청도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도급 행정구역 이름이 권역 내 대표도시 두 곳의 이름을 조합해 붙여진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충청도의 잦은 명칭 변경은 곧 오늘날의 충청도 권역 내에 대체 불가능한 핵심 중심지가 부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충청도는 그 위치상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특히 충남 천안, 아산 지역은 수도권과 바로 붙어 있어서 독자적인 도시권을 형성하면서 일상생활권의 교류가 수원, 인천, 서울 쪽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전이나 청주 또한 마찬가지로 이 수도권과의 교류가 왕성한 곳이고요. 대신 영남권이나 호남권과의 교류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충청도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지역색이 적은 편이죠. 특히 충청도 인구 구성의 상당수는 충청도 토착민과 함께 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도 출신이 뒤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심지어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각각 어떤 독특한 지역색이 존재하고 있는데 반해 유일하게 이 충청도 지역만 딱히 두드러지는 지역적 특색이 없는 편입니다.

충청도의 대 생활권은 대전권, 내포-천안권 그리고 충북권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충청도는 내륙 지역 특히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경부축을 중심으로 도시화 발달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대전권과 내포-천안권을 중심으로 충청도의 3대 도시인 대전, 청주, 천안이 위치하면서 충청도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인 3백만 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려고 하는 충청북도도 청주권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서 청주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매우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인구 160만 명 중 청주시 인구가 85만 명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충청북도에 소재한 청주, 진천, 충주와 제천 그리고 보은을 둘러보며 이들 지역에 얹힌 다양한 이야깃거리 속으로 빠져들어 봅니다. 오늘 우리의 학습목표는 충청북도에 누적된 서사의 기원과 맥락을 알고 오늘날까지 현존하며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각 지역의 서사를 이해하는 것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고 충청북도의 문화적 지형도를 직접 시각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청도의 주요 도시와 이를 둘러싼 인문 사회적 맥락은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 둘째, 충청북도 내 각 도시의 역사적 행보는 어떠했고 오늘날 도내 위상과 역할은 어떠한가? 셋째, 지역의 랜드 마크는 해당 도시 정체성과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여행지인 충청북도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해보시죠.

2차시 | 청주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이번 2차시에는 청주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는 충청북도의 중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청의 소재지이자 충청북도의 최대도시입니다. 청주는 광역시인 대전에 이어 충청권 제2의 도시이며 충청북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충청도의 청이 바로 청주에서 유래한 단어죠. 1차시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부선 철도나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 등의 소위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이후 개통된 중앙고속도로나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이 청주를 통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도내의 유일한 경부 축 인프라였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개발투자는 이 청주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현재에도 충북의 대부분의 인프라는 청주시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청주시의 경제규모는 이미 광역시 급 대도시가 되었는데요. 2018년 기준 청주시의 지역 내 총생산은 34조 원을 돌파하여 약 37조 원인 광주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에 이르고 있고 약 39조원 규모인 인근의 대전광역시에 버금가는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청주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전국 유일의 KTX 경부-호남선 분기역인 오송역과 충청권 유일의 국제공항인 청주국제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특히 다음 주차에 세종시를 다루면서 살펴보겠지만 KTX 오송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문철도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사업 및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주에서는 도자, 목칠, 섬유, 금속 등 공예의 전 분야를 다루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기도 합니다.

청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직지라는 이름입니다. 청주시의 대로인 직지대로나 직지초등학교 등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직지는 지명이 아니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짧게 부르는 명칭 직지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직지는 고려시대인 1372년에 청주에 있던 사찰인 흥덕사에서 제작이 시작되어서 1377년에 간행된 인쇄물로 총 두 권 분량의 책 중 제2권인데요. 이것은 간행 시기를 기준으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간행한 금속활자본 성경보다 약 78년이 앞서는 책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직지 이전에도 1234년의 상정고금예문과 같은 금속활자 인쇄물이 존재했었지만 이것들은 안타깝게도 소실되어서 현대에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인류에게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은 이 직지입니다.

이 직지의 실물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 당시 주한 프랑스공사로 부임했던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는 고서적 수집광이기도 했는데요. 플랑시는 자신의 취미대로 길거리에서 이 직지를 구입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프랑스 국립도서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물론이고 그 이후 약 1960년대가 되기 전까지 이 직지의 진정한 가치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해요. 그러다 1967년부터 13년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던 한국인 박병선 박사가 어느 날 우연히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조선왕실의궤와 함께 이 직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이 범상치 않은 자료임을 눈치 챈 박병선 박사가 홀로 연구를 거듭해서 이 직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활판인쇄 기법이 최초로 적용된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지는 지난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인데요. 다만 이



에 대해 약간 냉정하게 말해 보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직지는 말 그대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일 뿐 그것이 후대의 인쇄술과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력 내지 파급력을 생각해 보면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의 성취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인쇄기가 발명된 후 이 기술을 이용해 이후 약 50여년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약 2천만 권 이상의 책이 인쇄되었고 1500년대 초반 50여 년 동안에는 독일에서만 6천만 권 이상의 책이 인쇄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쇄기술이 보편화는 당대 유럽의 지성 세계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사회에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특히 성경의 대중화는 이후 종교 개혁과 대항종교개혁 같은 급진적인 사상 발전을 이끌어내면서 당대 유럽 사회의 질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고려에서는 이 직지 인쇄에서 발명한 금속활자인쇄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책에 대해 적게는 10부, 많아야 80부 가량의 책을 인쇄하는데 그쳤습니다. 사회적, 사상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이끌어냈다고 보기에는 양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죠. 금속활자 인쇄기술이 높은 가치를 지니는 인류의 발명품으로 취급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근대사회의 유례없는 지식, 정보혁명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직지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계 최초의 기술적 성취라는 이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이러한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에 유네스코 직지상이 2004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유네스코 직지상은 이듬해인 200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세계기록유산 보존, 활용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하고 있으며 상금과 비용은 모두 청주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직지의 가치 덕분에 직지가 탄생한 청주에는 유네스코 산하 기관인 국제기록유산센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청주 설립이 확정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2020년 7월에 공식적으로 창립절차를 마무리 지은데 이어 2023년 청주시에 연면적 2,307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산하에 새로 생기는 기관으로 유네스코 기록유산 분야로는 최초의 국제기구인데요. 이 센터 완공 후에는 세계기록유산 모니터링 체제 개발, 기록유산전문가 양성, 기록디지털 플랫폼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국가별 기록물의 수집, 보존, 관리 등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의 사후 관리와 관련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청주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청남대 그리고 상당산성이 있습니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인데요. 청주에는 물론 국립청주박물관, 청주예술의전당과 같은 문화시설도 설치되어 있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그 중에서도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관람객들이 개방형 수장고를 통해 수장고 내에 보존되어 있는 갖가지 미술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 청주관 등 4개의 미술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개방형 수장고 시스템은 이 중 청주관만이 갖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2018년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본래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장품을 보존하는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로 건립 계획되었던 시설입니다. 그러나 당시 청주시장이 수도권 바깥의 문화시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기왕 짓는 국립현대미술관 부속시설을 전시도 함께하는 미술관으로 건립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 의견이 수렴되어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예산이 증액되고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으로 개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수장 목적이 두드러지는 공간으로 기획되었으며 여기에 2000년대 이후 많은 해외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이 시도 중인 개방형 수장고의 형태로 특화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은 상설 수장전시장, 향운향습수장고, 특별 수장전시장 및 기획전시장 등이 들어섰고 전체 수장품 중 일부 수장품을 관람객에게 돌아가며 개방하고 있습니다. 총 1만 1천여 점의 미

술품을 수정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약 8천여 점의 절반인 4천여 점과 함께 정부 소장 미술품과 미술은행 작품 약 2천여 점을 포함한 총 6천여 점이 수장,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남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남대는 남쪽의 청와대라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 및 거주시설이죠. 청남대는 1983년부터 2003년까지 약 20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운영되었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청남대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5명의 대통령들이 휴가철에 휴식과 함께 국정을 구상하던 곳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4월에 민간에 개방된 이후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대통령 테마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위치상 대청호를 끼고 있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청남대에는 본관, 오각정, 골프장, 양어장, 초가정과 대통령 역사문화관, 대통령 광장, 하늘정원, 수영장, 음악 분수, 대통령 길 등 많은 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본관을 제외하면 마음껏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상당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성은 산세에 따라 산에 쌓은 성이고요. 상당은 청주의 옛 지명인데 고려사에 따르면 백제가 청주 지역을 처음 차지할 때 붙였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본래 백제시대부터 토성으로 조성돼 있던 것을 조선시대 숙종 조인 1716년에 석성으로 개축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도시의 성곽들은 근대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헐리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많지만이 상당산성은 시 외곽의 고개 너머 산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성곽의 형태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 풍경이나 이동로의 구조까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산성은 한반도의 성 건축 형태뿐만 아니라 풍경까지 잘 남은 성곽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입니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산성인지라 다른 많은 산성들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돌이 파내어져 초라한 토대가 드러난 부분이 많지만 그런 것조차도 평가가 좋은 편이고 쌓아 올린 돌담이 예쁘게 보존된 곳도 많아 나들이 삼아 방문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상당산성에 올라가면 청주 도심이 한눈에 보이고 산책로와 함께 식당이나 관광시설 등 위락시설이 들어서 있기도 합니다. 성은 동그란 모양으로 작은 골짜기를 감싸 안고 있는데 산성의 안쪽에는 마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토속음식들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네요.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 일대는 소위 중원지역이라고 불리면서 5~6세기 삼국시대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따라 관방시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부내륙 산성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등재 목록에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속하는 산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년산성, 상당산성, 충주산성, 장미산성, 덕주산성, 온달산성 그리고 미륵산성이 그것이죠. 이렇게 충청북도의 도청소재지, 청주여행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다음 3차시에는 진천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스포츠 문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 | 진천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이번 3차시에 찾아가 볼 도시는 진천입니다. 진천군은 충청북도에서 청주시 다음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곳인데요. 인근의 자치단체들보다 빠른 속도의 개발과 발전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고 인구증가율도 군급에서는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생겨진천 즉 살아서는 진천에 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과 명성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의 피해가 적고 진천평야라는 곡창지대를 끼고 있으며 풍작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농경시대 내내 이러한 명성이 이어졌죠.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지난 2007년부터 정책적으로 시도한 혁신도시 사업은 진천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혁신도시 사업은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방 각 지역으로 분산 이전시키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계획도시를 세워서 지역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도시 계획입니다. 총 153개 기관을 전국적으로 총 112개 지역에 이전시켜 112개의 혁신 도시를 건설하는 이 계획에서 진천군은 바로 옆의 음성군과 공동으로 충북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16개 기관이 입주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신규 설립이 확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욱이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동으로 유치한 충북혁신도시 사업에서 인구증가의 실익은 진천군이 누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혁신도시 내의 진천군 권역에 대규모로 지어진 공공주택으로 인해 진천군은 2019년 인구증가율 3.66%를 기록하면서 전국 시군 중 5위, 비수도권 시군 중 1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의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평균 연령이 31.5세를 기록하면서 젊은 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상권의 상가들에는 키즈카페, 소아과, 카페, 학원가 등이 들어찬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진천군에 관광자원으로는 사찰과 생태공원, 김유신 탄생지 등이 있는 연곡계곡 그리고 천 년이 넘는 돌다리인 진천 농다리 또 역사 테마 공원과 자연휴양림, 낚시로 유명한 초평저수지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현대의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진천의 시설을 꼽아보라고 주문한다면 아마 진천선수촌이라고 불리는 진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흔히 진천선수촌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조성된 전문적인 합숙기관입니다. 진천선수촌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했던 태릉선수촌의 뒤를 이어 조성된 제2의 국가대표 선수촌인데요. 이 진천선수촌의 조성은 혁신도시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이 태릉선수촌의 어떤 사연 때문에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야기의 맥락을 위해서는 진천선수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태릉선수촌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1964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964년은 제18회 도쿄 올림픽이 있었던 해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통해 재일교포들을 한국 지지그룹으로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그 시점의 국가사정에 비해 상당히 커다란 규모의 선수단을 이 도쿄 올림픽에 파견했습니다. 선수 165명, 임원 59명으로 이루어진 선수단 이었는데요. 이는 바로 직전 대회인 1960년 로마올림픽에 선수 36명, 임원 31명을 보냈었고 다음 대회인 1968 멕시코시티 올림픽에 선수 55명, 임원 21명을 보냈음을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의 선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도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라는 역대 최다 메달의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성과는 역대 최고 성적이기도 했지만 국력을 동원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 것에 비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는 왜 이렇게 저조한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 정부 주도로 논의를 벌인 끝에 종합 체육 훈련시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냉전 시기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이 추진했던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 기반 국립훈련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결과였죠.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국립종합 체육 훈련시설의 장소를 조선 문정왕후의 능인 태릉 인근 부지로 선정하고 이 선수촌 건설에 박차를 가해 1966년 6월에 최초의 건물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되기 시작한 태릉선수촌은 1986년의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회로 삼아 더욱 강화되어서 이후 2000년에 핸드볼, 배드민턴, 육상 실내훈련관인 오륜관이 건설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장을 거듭해 오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유일의 국립 종합 스포츠 트레이닝 센터로 그 명성을 갖춰왔습니다.

그런데 이 태릉선수촌은 2009년에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9년 6월 태릉선수촌에 바로 인접해 있는 태릉과 강릉을 포함해 18개 조선왕릉 권역 내에 위치한 40개의 조선왕가 능이 조선왕릉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네스코는 능에서 바라보는 풍광을 해당 능이 조성될 당시의 풍경에 준하도록 원상복원 시킬 것을 전제로 세계유산 지정을 협약했는데요. 이에 따라 태릉과 강릉이라는 조선 왕릉 권역을 침범해서 건립되어 있던 이 태릉선수촌은 통째로 이전을 해야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태릉선수촌 이전이라는 이슈 자체는 2009년에 갑자기 닥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했고 또 조선왕릉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 신청하는 준비가 꽤 일찍부터 이루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2003년부터는 이 태릉선수촌을 대체할 선수촌에 대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듬해인 2004년에는 벌써 국가대표 선수촌 건립의 여러 예비후보지 중 충청북도 진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인구 7만 명 규모였던 작은 도시 진천은 도시발전의 핵심동력 사업 중 하나로 이 국가대표 선수촌 유치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은 사실 중소도시의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기관인데요. 가령 태릉 같은 경우에는 본래 조선왕릉 태릉에서 유래한 지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여 년의 세월 동안 여러 미디어를 통해 한국인들 사이에 마치 국가 대표의 고향 같은 이미지로 노출되어 오면 서태릉이라는 단어가 곧 국가대표를 상징하는 말처럼 사용될 정도의 높은 인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을 유지해온 유서 깊은 곳이니만큼 당연히 체육인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꿈의 목적지이자 꿈의 훈련장으로서 평생의 숙원인 행선지로 인식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태릉에 높은 국민적 인지도는 매년마다, 격년마다 있는 다양한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는 물론이고 최소한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올림픽의 존재 덕분에 전 국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유지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새로운 국가대표 선수촌을 유치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수많은 국가대표들과 이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장기간 합숙하며 먹고 자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효과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전국의 체육인과 나아가 전국의 국민들에게 마치 한국 스포츠의 메카와 같은 인지도로 소개되고 또 소비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해당 중소도시의 브랜딩 효과에도 막대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선택지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매력적인 선택지인 새로운 국가대표 선수촌의 건립 대상지로 진천이 드디어 선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진천선수촌 건립 1단계 공사는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던 2009년 2월에 착공되어 2011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태릉선수촌을 완벽하게 대체하기 위해서 시작한 2단계 공사는 2013년 12월에 착공해서 2017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17년 9월 27일에 진천선수촌이 정식으로 개장되기에 이릅니다. 건립과 조성에 총 5천억 원이 투입된 진천선수촌의 대지면적은 163만 5,891제곱미터로 이는 태릉선수촌의 다섯 배 크기이고 수영장, 크로스컨트리 트랙, 클레이사격장, 실내사격장, 종합운동장, 농구장, 야구장, 소프트볼장, 카누, 조정훈련장, 실내테니스장, 양궁훈련장, 빙상훈련장, 사이클 벨로드롬, 선수회관, 체력훈련장, 선수 합숙시설, 선수 부대시설, 투척 필드, 럭비 훈련장, 하키 훈련장 등을 갖추고 있어 총 35개 종목의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전문적인 훈련시설을 협회 차원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던 축구와 같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올림픽 종목을 이곳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

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에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엿볼 수 있듯 대한민국은 자생적으로 안착하기 어려운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선수촌 시스템을 축소시키지 않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릉선수촌의 내구연한이 다된 시점에서 더욱이 인근 태릉과 강릉의 세계유산 지정이라고 하는 거대한 외적 요인을 만나 그 존폐가 거론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새로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이 진천선수촌을 건립한 것을 보면 스포츠를 바라보는 한국의 이러한 기조와 관점이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쫓아이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엘리트 체육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한국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이른바 콩글리시 중 하나입니다. 스포츠 각 종목에 재능이 있는 정예들을 어린 나이부터 차출하여 초등교육 과정에서 고등 교육과정으로 이르는 전 교육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체육지도자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체육을 엘리트 체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서는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에게 국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업체로부터 물품 협찬이나 광고와 같은 스폰서십이 체결되기도 하죠. 쉽게 말해 프로리그가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종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마치 프로리그 구단의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이나 선수 케어 시스템과 같은 지원 체계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를 엘리트 체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용어만 다를 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특히 올림픽에 있어서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활용해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죠. 진천선수촌의 건립으로 이제 진천은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스포츠의 중심이자 구심점으로서 실질적인 또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체육인들의 땀과 눈물, 의지와 노력이 이곳 진천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겠죠. 진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4차시에는 충주와 제천을 돌아보며 곳곳에 산재한 이야기 자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 | 충주와 제천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이번 4차시에는 충주와 제천을 돌아보며 곳곳에 산재한 이야기 자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로 가볼까요? 충주는 충청북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시로 인구 수 21만 명으로 충청북도 제2의 도시입니다. 충청도의 충이 바로 이곳 충주에서 유래한 단어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산지이자 시내가 월악산을 포함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라서 일교차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 농특산물인 충주사과의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대 시기부터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충주지역은 특히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당대의 가장 강성한 국가에 의해 돌아가며 점유되던 지역인데요. 삼국시대 이래 4세기 이전까지는 백제에 속했지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백제를 몰아내고 충주지역 일대를 차지하게 되었고 고구려는 충주 일대를 국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551년에는 신라의 진흥왕이 국토를 확장하면서 이곳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후 신라는 557년에 충주일대를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쯤 되는 소경으로 지정하고 558년에는 수도 서라벌 인근에 살던 부유한 백성들을 이곳 국원으로 옮겨서 도시를 키웠다고 합니다. 신라의 삼국정벌 이전에는 2소경 중 하나인 국원경이었고 신라의 삼국정벌 후에는 5소경 중 하나인 중원경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때 중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국토의 중앙이라는 의미입니다. 충주에 소재하고 있는 국보 제6호 중앙탑. 정식 명칭으로는 충주 탑평리 7층 석탑은 이때 조성된 것인데요. 이것 역시 당시 이 곳이 국토의 중앙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주에 남아있는 문화유산 가운데도 삼국시대와 관련한 유산들이 이름이 높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장미산성과 충주고구려비, 탄금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장미산성은 삼국시대의 산성입니다. 이 지역이 워낙 각축지였던 터라 정확한 축조 주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 성곽인데요. 과거에는 고구려 성곽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지만 발굴 결과 백제가 가장 먼저 축조했고 이후 고구려가 잠시 점령했다가 신라가 최종적으로 손에 넣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미산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등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중부내륙 산성군을 구성하는 산성들 중 하나입니다. 충주고구려비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유일한 고구려의 비석입니다. 고구려는 391년부터 412년까지 재위했던 광개토 대왕이 주로 북방 지역을 개척을 했고 그 아들인 장수왕이 412년부터 491년까지 재위하며 남진정책을 추진하여 전성기를 맞이했었는데요. 바로 이 장수왕이 중원지역을 장악하면서 세운 기념비가 충주고구려비입니다. 이 비석의 크기는 높이 203센티미터, 전면 폭 55센티미터, 좌측면 폭 33센티미터로 돌기둥 형태의 자연석을 이용해 네 개 면에 모두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그 형태가 만주에 있는 광개토대왕비와 비슷한데요. 충주고구려비에는 한 행당 평균 23자 꼴로 총 528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마모가 심해서 해석이 아주 어려웠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내용은 고구려 영토의 경계를 표시하는 비로써고구려가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을 함락하고 한반도의 중부 지역까지 장악하여 그 영토가 충주지역에까지 확장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충주고구려비는 4~5세기 당시 고구려와 신라, 백제 삼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대한민국의 국보 제20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탄금대는 삼국시대 가야의 우륵과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신립 장군과 관련된 유적지입니다. 먼저 가야는 서기 42년부터 562년까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존재했던 대가야,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등의 고대국가 연합체입니다. 이 중 대가야에서 출생한 우륵은 음악가인데요. 12줄의 현을 가진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최초로 고안한 인물입니다. 이 우륵은 왕산악, 박연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한국사의 3대 악성으로 손꼽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음악가로서 우륵은 가야 각 소속 국의



지방 특색이 있는 고유음악을 정리해 편곡 및 작곡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551년 경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에 이 우륵은 제자와 함께 가야에서 신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우륵은 신라의 진흥왕 앞에서 연주를 한 후 진흥왕의 찬사를 받아 현재의 충주인 국원경에 거처를 하사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충주지역에 자리를 잡은 우륵은 기암절벽을 휘감아 돌며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과 울창한 송림 등으로 경치가 매우 좋은 한 야산에 거처를 마련하고는 당대 신라의 청년들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했는데요. 그 소리를 듣게 된 사람들이 가야금의 음색이 갖는 매력에 푹 빠져들어 모여든 후 이내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한 이 지역을 가야금을 연주한 곳이라는 의미의 탄금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 탄금대는 1592년의 임진왜란 당시 무장 신립이 8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외장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군의 군대를 맞아 탄금대 전투를 치른 전적지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6주차와 8주차에 각각 전라남도과 경상남도를 돌아보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전국시대를 통일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과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한반도를 침략하면서 일어났던 전쟁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탄금대 북쪽 남한강 언덕의 열두대라고 하는 절벽은 신립이 임진왜란 당시에 12번이나 오르내리며 활줄을 물에 적서 쏘면서 병사들을 독려하였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싸웠지만 전세가 불리해서 결국 패하게 되자 신립은 그 만 강에 투신자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제천은 충청북도 내에 속해 있으나 충북의 정체성이 약하고 전체적으로 강원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제천의 인적교류가 강원남부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언어와 문화는 충청도보다는 영동 동남부지방과 더욱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이후로도 제천은 강원도에 영월, 정선, 태백을 잇는 교통거점 도시로 성장해 왔으며 시멘트 산지로서의 정체성과 시멘트 산업 구조를 강원 남부 지역과 상당량 공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천은 충청도를 논할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상징성을 지니는 도시인데요. 그 이유는 1차시에서도 잠시 언급 드렸듯이 이 충청도를 다르게 부르는 옛 명칭 호서 즉 호수의 서쪽이라는 명칭의 기준이 되는 호수인 의림지를 품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도시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천이라고 할 때의 제라는 단어가 바로 독, 제방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결국 도시 이름 제천은 풀어쓰면 의림지의 도시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림지는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중 하나입니다. 다른 두 저수지와는 달리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여전히 관개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저수지이기도 한데요. 이 의림지는 삼한시대 즉 원삼국시대에 축조되었다는 견해도 있고 더 나중인 삼국시대에 축조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의림지는 약 2천 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호수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는 퇴적물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호수이자 저수지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의림지가 맨 처음 생겨날 때 이게 자연호수로서 생겨났는지 혹은 인공 저수지로서 생겨났는지 여부는 아직까진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농업이 시작된 이후로 이 의림지가 일대 전역에 수자원 공급의 역할을 담당하던 핵심적인 관개시설 역할을 도맡아왔다는 점이지요. 수천 년의 농업기반 역사 속에서 이 일대 주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감당해온 의림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실 물이 들어차 있는 호수보다는 제방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림지의 제방은 시대에 걸쳐서 조금씩 높아졌다고 합니다. 제방을 축조할 때에는 서울에 소재한 백제의 고대왕성인 몽촌토성, 풍납토성 등과 같이 부엽토 공법이 이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부엽토 공법이란 연약한 지반 위에 갈대 같은 초본류, 나뭇가지, 삼나무 껍질 등등을 토대로서 보충해 깔아 제방이나 성벽을 단단하게 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요즘과 같은 대형 토목건설 장비도 없던 시절에 큰 제방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림지 규모의 제방이 조성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이 곳 제천지역에 큰 권력자가 있었거나 의림지 자체가 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림지의 한쪽에는 인공폭포가 조성되어 있고 인공폭포로부터 조금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는 높이가 10미터 이상 되는 용추폭포라는 자연폭포도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이 용추폭포는 저수지의 물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졌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항상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고 비가 오거나 인공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때에만 볼 수 있는 폭포입니다. 이 용추폭포 위에는 유리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철제 기둥에 설치된 센서를 지나면 불투명 유리가 투명 유리로 바뀌어 폭포가 내려다보입니다. 발아래 쏟아지는 시원한 물을 지켜보며 걸을 수 있어서 마치 폭포 위를 산책하는 듯한 아찔함과 폭포의 시원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전망대죠. 의림지는 겨울철에 빙어가 유명하며 두께 8센티 이상 얼어붙는 이 호수의 위로는 사람들이 썰매를 타거나 구멍을 뚫어 빙어낚시를 즐기곤 합니다. 또 이 의림지는 그 자체로 제천의 상징이자 랜드 마크이기 때문에 매년 열리고 있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의 상영관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의림지는 제천시에서 추천하는 제천관광 10경 가운데 당당한 제1경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이어오며 오랜 세월을 걸쳐 사람들의 생명수가 되어주었던 이 의림지는 오늘날에 이르러 인근 주민들의 유년시절 단골소풍 장소이자 가족의 추억이 담긴 유원지이며 또 오붓한 산책로와 데이트 코스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림지의 바로 북쪽 면에는 지난 2019년에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건립되어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은 이 의림지의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고스란히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충주와 제천으로 떠났던 이번 차시 재미있으셨나요? 우리는 이제 다음 5차시에서 보은으로 향해봅니다. 그곳에는 또 어떤 이야깃거리들이 숨어 있을지 우리 모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5차시 | 보은의 이야기와 문화자원

이번 5차시에는 보은으로 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은 충청남도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약 3만2천 명 규모로 작은 도시인데요. 보은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크게 번성한 도시인 상주와 청주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지만 1905년 개통된 경부선이 보은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서 경상도 지역과 충청도지역을 오가는 주요 교통로가 추풍령으로 변하게 되어 도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로 소멸 위험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생활권 상으로는 청주와 대전이라는 두 대도시의 영향권에 들지만 대체적으로는 일부 서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청주 생활권에 보다 가까운 편입니다. 보은에는 우리가 꼭 둘러봐야 할 장소가 있는데요. 법주사와 삼년산성이 그것입니다.

먼저 법주사는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건립되어 있는 불교사찰입니다.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때인 533년에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그가 귀국할 당시 서역에서 전래된 불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절의 이름을 법주 즉 불법의 집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776년에 진표율사가 대규모로 중창하였으며 고려 시대를 거치며 현재의 규모를 갖추었지만 1597년 일본의 정유재란으로 사찰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이후 1624년에 사명대사 및 벽암대사가 주도하여 다시 짓고 증축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앙유적으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을 받아서 2009년에 대한민국의 사적 제503로 지정되기도 했고 2018년에는 양산의 통도사, 영주의 부석사, 안동의 봉정사, 공주의 마곡사, 순천의 선암사, 해남의 대흥사와 함께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법주사는 근대 이전에 만들어진 목탑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팔상전으로 유명한 절입니다. 또 법주사는 높이 33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금동미륵불상이나 각종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절인데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팔상전과 함께 쌍사자 석등, 석련지 등 국보 세 점과 대웅전, 원통보전 등의 보물 13점,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 그 밖의 도지정문화재 24점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제55호인 팔상전은 정유재란 당시 불에 타버린 이후에 1624년에 재건된 목탑입니다. 높이는 22.7미터, 평면은 5칸으로 정방형 형태를 띠고 있죠. 불탑의 조성방식은 나무로 만든 목탑과 벽돌로 만든 전탑 그리고 돌을 깎아 만든 석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목탑이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팔상전은 이 두 시대가 모두 끝난 조선 중기 무렵에 재건된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고대식 목탑과는 달리 외형이나 구조가 상당히 특이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목탑은 탑의 한 가운데에 심주라고 불리는 거대한 기둥이 있어서 탑 꼭대기에 설치되는 금속장식물을 떠받들고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주위의 각 층마다 분절된 구조물들이 심주와 결합된 채 각층에 쌓인 각각의 기둥들이 하중을 분산하며 탑을 지탱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주사 팔상전은 거대한 중심 기둥인 심주를 중심으로 1층부터 맨 위층까지 통으로 된 길다란 기둥들이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연속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5호인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에 만든 쌍사자 석등입니다. 여느 석등과 마찬가지로 상부와 하단은 팔각형이지만 사자 암수 한 쌍을 조각하여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두 사자가 가슴을 맞대고 앞발을 위로 치켜세운 형태로 서 있어서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인 X자형 자세를 이루고 있죠. 쌍사자가 기둥 역할을 하는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되어 법주사 외에도 몇 기가 더 남아 있지만 그 중에 법주사의 석등이 균형미가 뛰어나고 섬세한 조각이 더 잘 보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불타의 진리를 상징하는 석등을 사자가 높이 치켜들어 올림으로써 불법을 수호하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제64호인 법주사 석련지는 삼국정벌 이후 신라시대인 720년에 만들어진 연꽃모양의 화강석재



석련지입니다. 석련지란 돌로 만든 작은 연못이라는 의미로 신라시대 당시 물을 담아 연꽃을 띄워두던 조경석을 뜻합니다. 높이 1.95미터, 둘레 6.65미터 크기로 기단부는 팔각형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 잘록한 부분에는 구름 모양으로 조각된 돌이 올라가 있으며 그 위에 커다란 석련지가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져 올려져 있습니다. 보존 상태가 매우 좋고 세부의 조각 수법이 우수하며 조형도 세련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주사 석련지는 한국 석련지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며 신라시대 융성했던 석조공예술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103호인 보은 속리 정이품송은 법주사의 입구로 향하는 길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소나무입니다. 높이 16.5미터, 가슴 높이의 줄기 둘레는 5.3미터이며 수령은 약 6백년에서 7백년 사이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나무에는 조선의 왕이었던 세조가 얹힌 일화가 있어 한국 대중들에게 매우 유명한 천연기념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조에 관련된 일화는 다음과 같은데요. 세조가 재위 10년째이던 1464년에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할 때 이 나무 아래를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굉장히 큰 데다 그 가지가 마치 우산을 편 듯 아래로 중후하게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타고 있던 가마가 소나무 아래 가지에 걸릴까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신하들이 가마가 나뭇가지에 걸린다, 라고 말하던 그 순간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 올려 어가를 무사히 지나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낱 식물에 불과한 소나무가 임금을 알아보고 몸을 피한 것에 감동한 세조는 이 소나무에 오늘날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2품 벼슬을 하사했고 이후 이 정이품송은 조선 왕조 내내 왕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매우 유명한 이야기였던 이 일화는 세조가 부정적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 다분히 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세조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여러 아들 중 하나로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그의 어린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세조는 이 단종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위협을 가하여 결국 왕위를 찬탈하고 맙니다. 이러한 세조였기에 오늘날 정이품송 이야기는 세조가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프로파간다로서 자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설화를 만들어 퍼뜨린 것일 가능성을 지적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이품송의 오랜 명성도 어느 정도 빛이 바랬고 역사적 스토리텔링 자료 및 관광 자료로서의 가치 또한 교차검증을 위한 가치로 다소 격하된 감이 있습니다. 중국의 태산 오대부송과 황산의 영객송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이품송의 생물학적 가치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아시아에서 소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건축자재나 땃감, 기타 송진과 같은 부산물 등 그 쓸모가 많은 나무였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수백여 년 동안 왕실과 정부의 보호를 받아온 이 소나무는 한반도의 고종세 생물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이 나무는 본래 그 형태가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했는데요. 중심줄기가 매우 곧고 가지가 삐죽이나 우산을 편 버섯모양의 독특한 소나무로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자랑해왔습니다. 다만 정이품송은 지난 1993년에 강풍으로 서쪽가지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입어서 현재는 이전의 웅장한 모습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워낙 유명한 소나무인데다 그 생물학적 가치가 높고 외향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정이품송의 혈통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지난 2001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소나무는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나무입니다. 순수혈통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꽃가루를 암꽃에 수분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씨앗이 잘 생기지 않거나 생겨도 좋은 나무로 자라지 못하는 자식약세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 각지에서 선발한 어미 나무 후보 중에서 강원도 삼척의 소나무 5개체를 선정해 2001년 정이품송과 혼례식을 치른 이후다른 꽃가루와 수분하지 못하도록 어미나무의 암꽃에 종이봉투를 씌운 채 정이품송의 꽃가루를 수분시키는 방식으로 정이품송 혈통보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침내 첫 아들 소나무인 장자목을 얻게 되었고 DNA조사 끝에 지난 2008년 10월에 이

장자목이 정이품송의 친자식임이 최종 확인되면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향후 분양신청을 받아 독립 기념관이나 국회의사당과 같이 의미가 있는 곳에 열 개체 가량을 분양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년산성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년산성은 신라가 삼국통일의 전초기지로 쓰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축조한 요새였습니다. 성을 쌓는데 화강암 덩어리 약 1천만 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3년간의 축성 끝에 470년에 완공했기 때문에 이름을 삼년산성이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삼년산성이 축조되던 5세기 한반도는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던 시대였고 그래서 견고한 성이 필요했기에 막대한 노동력을 들여서 삼년산성을 축조한 것입니다. 이 성의 둘레는 약 1.8킬로미터이고 성벽은 납작한 돌을 이용해서 한 층은 가로 쌓기를 하고 한 층은 세로 쌓기를 하여 굉장히 튼튼하며 성벽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10미터 이상으로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조선시대의 산성이 산 정상에 두르는 형태로 대체로 낮은 편인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삼년산성은 그야말로 요새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죠. 이처럼 성벽이 높고 크기 때문에 하중도 막대하므로 성벽모퉁이의 하중이 큰 부분에는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자 돌을 4중 계단식으로 쌓았습니다. 이 삼년산성은 난공불락의 천년 요새로 명성이 드높았습니다. 역사서에 기록된 공식적인 기록만 보아도 149승 1패라는 압도적인 방어력을 자랑했는데요. 백제는 물론이고 수나라와 당나라를 꺾었던 고구려조차 이 성을 함락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훗날 고려 태조 왕건조차도 후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이 성을 빼앗으려 재워 11년째이던 928팔년에 공성전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1패는 822년 김헌창의 반란 당시 김헌창이 삼년산성에서 관군에 패하여 함락당한 것인데 역사서에 남은 기록은 불과 한 줄 뿐이라서 어떻게 함락되었는지 커녕 그 전투과정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성들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난공불락 요새인지라 아마도 내부자의 배신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지나지 않죠.

이처럼 삼년산성은 5세기 후반 신라의 축성기술을 대표하는 한국의 역사에서 돌을 이용하여 쌓은 대표적인 산성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삼년산성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등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중부내륙 산성군을 구성하는 산성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충청북도에 소재한 청주, 진천, 충주와 제천 그리고 보은을 둘러보며 이들 지역에 얹힌 다양한 이야기거리 속으로 빠져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전과 충청남도로 떠나 이 지역에 얹혀있는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1. 지식형 | 퀴즈(객관식)

1. 다음 중 충청도에 대해 잘못 설명한 문장을 고르시오. (정답: ④)

- ① 동서로 긴 지형 때문에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이름과 달리 동-서로 분할되어 있다.
- ② 역사적으로 역내에 부동의 중심도시가 부재하여 이름이 수차례 변경되어 왔다.
- ③ 강원, 전라, 경상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약하다.
- ④ 인접 시도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어서 생활권은 충청도 내에서 하나로 묶이는 경향을 보인다.

2. 다음 중 청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②)

- ① 청주는 한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입지 때문에 삼국시대의 주요 전략 거점이었다.
- ②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보유 소장품의 수장고 역할이어서 일반 관람이 제한된다.
- ③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심체요절이 청주의 흥덕사에서 만들어졌다.
- ④ 청남대는 1983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운영되던 시설이다.

3. 다음 중 수업시간에 언급된 사실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정답: ①)

- ① 진천선수촌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국립 종합 체육 훈련시설로서 건설되었다.
- ② 충주 탄주대에서는 가야금과 가야음악을 신라에 전한 우륵이 가야금을 직접 연주했다고 전해진다.
- ③ 의림지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3대 저수지 중 하나로 제천이라는 도시명의 어원이 되었다.
- ④ 보은 속리산 법주사 입구의 정이품송은 수백여 년 간의 보호로 생물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4. 다음 중 충청북도에 위치한 문화유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정답: ④)

- ① 삼년산성 ② 온달산성 ③ 상당산성 ④ 아차산성

2. 연결형 | 자료제공

<시청각자료>

다음의 링크에서 <다큐멘터리 3일: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편을 감상한 후, 시대변화와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이 쇠퇴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지역의 이야기 소재와 이야기 자원에서 찾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KBS 다큐3일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Vrhqag6reRs>





사진 출처 : 다큐3일 유튜브

3. 연결형 | 자료제공

<읽기자료>

다음 글을 통하여, 문화가 가장 최선의 가치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국 혹은 자국이 포함된 문화권 내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영상문화도시' 청주시,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와 영화 협약

뉴스시스 | 2020.02.12.

[청주=뉴스시스] 임선우 기자

'영상문화도시'를 꿈꾸는 충북 청주시가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영화 파트너로 맞는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12일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와 업무협약을 했다. 앞으로 청주영상위원회는 영상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남대 팸투어를 진행하고, 우수 영상 콘텐츠를 유치할 방침이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주영상위원회의 헌팅·촬영에 협조하고, 팸투어 등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한다.

1983년 옛 청원군 문의면에 지어진 청남대는 국내 유일의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다가 2003년 민간에 개방됐다. 본관과 별관, 대통령기념관, 대통령광장, 오각정, 골프장 등이 조성돼 있다. 영화 '1987', '나의 독재자', 드라마 '아이리스', '제빵왕 김탁구' 등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212_0000916916&cID=10899&pID=10800

4. 연결형 | 자료조사

<자료조사>

근대 이전에 군사적 기능으로 건조된 산성이 근대 이후의 군사학적 변화와 함께 쇠퇴한 과정을 찾아보고, 오늘날 유적으로 남은 산성(지)를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5. 탐구형 | 탐방

<자료조사>

구글어스 등 자국에서 접속 가능한 위성사진 지도를 활용하여 학습한 도시와 도시 내 지역들을 찾아보고 각 지역 별로 배운 내용을 기록해봅시다.



Story and Cultural Resources of Chungcheongbukdo | English Script

The First Session | Introduction

Hello. This is Kim Seiik from Kyunghee University, We are here talking about Korean culture and Korean stories from a cultural content perspective. This is the third session of Korean narrative and culture mapping. We will learn about the stories and cultural resources throughout Chungcheongbuk-do. In the old days, three provinces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were called Samnam or Samnam region as one group. Most of the Samnam region overlap with the traditional south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ccupy about 32% of the territory.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divided into northern,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the expression "Samnam region" has been used to refer to this southern region. However, in modern times, afte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North and South Korea, the expression "Samnam region" is not often employed. This is because after the division, the three southern regions have become to occupy a large area of more than 70% of the land of South Korea. Therefore, since the division, each province was separately denoted by its name, and the expressions Seoul Capital Area and Non-Seoul Capital Area were used to reflect the concentrated population around the Seoul area. The three southern regions,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had fertile soil for farming since ancient times because of the warm climate and the wide plains, which is reflected in the proverb, "If the Samnam region has a prosperous year, the country will never starve." For the next two weeks, we will visit Chungcheong-do, a mid-southern region of South Korea facing the West Sea.

On our first week, I briefly mentioned expressions such as Honam and Yeongnam as nicknames for Korean regions. Other than Honam and Yeongnam that are widely used even to this day, Hoseo is not a popular expression but refers to Chungcheong-do. During the first week's lesson, we learned that the name Honam means the southern part of the lake, and this lake is the Byeokgolje Reservoir Monument and Embankment in Gimje. Hoseo means west of the lake and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which lake marks the western boundary. Interestingly, the major opinion is Uirimji Reservoir in Jecheon. Byeokgolje and Uirimji share similarities in that both are artificially created large-scale reservoirs for agriculture that were well known to people even in other regions during the pre-modern period. As we will travel to each province throughout class you may notice that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are administratively divided into Nam-do and Buk-do. You can see on this map that unlike Jeolla-do and Gyeongsang-do, which are actually divided into southern and northern regions, the southern and northern provinces of Chungcheong-do are nearly at the same latitude that erases the meaning of 'North and South'. Surely, the provinces were



divided into east-west and not north-south. In fact, the names were confirmed as Chungcheongbuk-do and Chungcheongnam-do to match the divisions of other provinces. Since Chungcheong-do is a long area from east to west, it was initially partitioned into east-west divisions.

The division between the southern and northern provinces occurred when the government first decided to divide the entire peninsula into 13 provinces during the Great Korean Empire in 1896. Chungbuk and Chungnam were named based on the locations of the representative cities of Chungcheong-do, Chungju-si and Ganggyeong-eup. Traditionally, in Joseon era, the country was divided into eight provinces wher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ere operated: Gyeonggi-do, Chungcheong-do, Jeolla-do, Gyeongsang-do, Gangwon-do, Pyeongan-do, Hwanghae-do, and Hamgyeong-do. By 1896, apart from Gyeonggi-do, Gangwon-do and Hwanghae-do, the remaining provinces were divided into northern and southern provinces to make a of 13 provinces. Since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Jeju Island, which originally was a part of Jeolla Province, was designated as a separate province. In North Korea Hwanghae-do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into Jagang-do and Ryanggang-do. In sum, currently,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ve 8 provinces each. The word 'Paldo', which was used since the Joseon Dynasty to refer to the whole country, is often used even today, at least in Korea, as it is an expression that not only refers to the entire Korean Peninsula, but could also refer to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n fact, the name of Chungcheong-do has changed close to 20 times during the Joseon Dynasty, by combining the names of the main cities of Chungju, Cheongju, Gongju, and Hongju, Chungcheong-do was called Chunggong-do, Cheonggong-do, Cheonghong-do, Chunghong-do, and Gongcheong-do, until finally, it reverted back to the first name Chungcheong-do. As we learned, the name of the province was given by combining the names of two representative cities in the region, and frequent changes of name of Chungcheong-do can be interpreted as the absence of an irreplaceable major center in Chungcheong-do region. Chungcheong-do is located adjacent to the Seoul Capital Area. Since cities like Cheonan and Asan of Chungnam are directly adjacent to the Seoul Capital Area, they form an independent urban area that are closely connected to Suwon, Incheon, and Seoul. Daejeon and Cheongju also have active exchanges to the Seoul Capital Area. However, since these exchanges rarely extend to the Yeongnam region and Honam region, Chungcheong-do has less regional colors compared to others. Most of the population of Chungcheong-do is a mixture of people from the Seoul Capital Area, Yeongnam, Honam, and Gangwon-do along with the indigenous people of Chungcheong-do. So, while Gangwon-do, Jeolla-do, Gyeongsang-do, Jeju-do, and even Seoul and Gyeonggi-do have a unique regional color, Chungcheong-do has little distinctiv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large living areas of Chungcheong-do are separated into Daejeon, Naepo-Cheonan, and Chungbuk. However, Chungcheong-do has an extensive urban development, especially around Seoul-Busan Railroad and Seoul-Busan Expressway. Therefore, the three major cities of Chungcheong Province, Daejeon, Cheongju, and

Cheonan, are located in Daejeon and Naepo-Cheonan area, and has 3 million people, a number representing about half of the total population of Chungcheong Province. Chungcheongbuk-do developed based on the Cheongju, which brought about the drastic gap between Cheongju and other regions. Of the 1. 6 million population in Chungcheongbuk-do, more than half of the population, 0. 85 million live in Cheongju. Today, we will take a look around Cheongju, Jincheon, Chungju, Jecheon, and Boeun in Chungcheongbuk-do, and learn about the various stories related to these regions. Our goal today is to examine the origin and context of the narratives accumulated in Chungcheongbuk-do, and to understand their long-lasting impact that affects the region to this day. We will also try to explore the thoughts and lives of its citizens and visualize the cultural topography of Chungcheongbuk-do.

The key questions for these would be the following. First, how have the major cities of Chungcheong-do changed along with their humanities and social contexts around them? Second, what was the historical progress of each city of Chungcheongbuk-do and what is the status and role of the province today? Third, how do local landmarks affect the city's identity and image? With these questions in mind, let's move on to our destination, Chungcheongbuk-do.

The Second Session | The Story and Cultural Resources of Cheongju

For the second class, we will visit Cheongju. Cheongju is located in the midwestern region of Chungcheongbuk-do and is its largest city as well as the seat of province capital. Cheongju is the second largest city in the Chungcheong region after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is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enter of Chungcheongbuk-do. I mentioned earlier that the word Cheong of Chungcheong Province is derived from Cheongju. Although Chungcheongbuk-do is located in the center of South Korea, it has developed around Gyeongbu Lines such as Seoul-Busan Railroad, and Seoul-Busan Expressway, as we saw in the first class. So, before Jungang Expressway or Jungbu Naeryuk Expressway, which opened in the late 90s, Seoul-Busan Expressway and Jungbu Expressway passing through Cheongju were the only Gyeongbu-side infrastructure in the province. Therefore,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Chungcheongbuk-do was centered on Cheongju, and to this day, most of the infrastructure in Chungcheongbuk-do is concentrated in Cheongju.

For this reason, the current economic scale of Cheongju has already reached a metropolitan-level. As of 2018, the regional domestic gross of Cheongju City exceeded 34 trillion won, reaching close to tha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s 37 trillion won, and is comparable to Daejeon Metropolitan City's 39 trillion won. Today, Cheongju acts as a transportation hub, with Seoul-Busan Expressway and Jungbu Expressway, as well as Osong Station where the Gyeongbu KTX Line and Honam Line diverge, and Cheongju International Airport, the only international airport in the Chungcheong region. Osong Station is also a gateway to Sejong City, an administrative complex city we will encounter in the next session. The development of the station area and a life science complex known as Osong biovalley are also pursued. In addition, the Cheongju Craft Biennale was held since 2011 in Cheongju, with all fields of crafts such as ceramics, wood lacquer, textile, and metal represented.

One of the most common words you can see in Cheongju is Jikji, such as the Jikji-daero (avenue) and Jikji Elementary School. Jikji is not a geographical name, but taken from <Jikji Simche Yojeol>: Selected Sermons of Buddhist Sages and Seon Masters, which is the world's oldest metal type print book. The Jikji that remains today is one of the two volume-books, which began to be produced in 1372 and published in 1377, at Heungdeok temple in Cheongju during the Goryeo Dynasty. This is about 78 years prior to Johannes Gutenberg's metal print Bible. Records show that metal type prints existed around 1234, even before Jikji, but are lost with time. Jikji is the world's oldest extant book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

The original Jikji is currently kept at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as Jikji had been in the collection of Victor Colin de Plancy, who served as minister of the French Embassy in Korea during the Great Korean Empire. de Plancy bought the second volume of the Jikji from the streets for his collection in Seoul and sent it to France, where it is



now kept at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in Paris. However, at that time and until the 1960s, no one knew the true value of the Jikji. One day the book was rediscovered by Dr. Park Byeng-sen who was working as a librarian in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for 13 years. The Jikji was discovered along with the Joseon Wangsil Uigwe: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the French army looted in Byeonginyangyo (the French Expedition to Korea) in 1866. Dr. Park Byeng-sen realized that this was an unusual material and conducted research on his own to discover that Jikji is the world's oldest printed with metal type. The world's first metal type printing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printed product where the identical typepress printing techniques of today is applied. So, the Jikji was added to UNESCO's Memory of the World in 2001, and recognized as the oldest metal type in existenc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oldest in the world is not always the best.

While Jikji is the oldest metal type printed book, its influence on the printing press and society was minimal compared to that of the achievements of Gutenberg typography. With the invention of Gutenberg's mechanical movable-type printing press, more than 20 million books were printed across Europe using this technology over the next 50 years. It is believed that over 60 million books were printed only in Germany in the first 50 years of the 1500s. The widespread printing technology had a tremendous impact not only on the intellectual world of Europe at the time, but also on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the mass-production of the Bible led to radical ideological developments such as the Reformation and Counter-Reformation, and became the driving force that led the European society of the time to a new paradigm. On the other hand, in Goryeo, the metal type printing technology was only used for printing only 80 copies at most. In terms of social and ideological ripple effect, it was relatively insignificant. One of the biggest reasons why metal type printing is regarded as a crucial invention of mankind is because it is a base technology that can allow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an unprecedented level. In this sense, Jikji is a heritage that did not reach its full potential. However, the fact that it is the world's first technological achievement is still valid. The UNESCO Jikji Prize was established in 2004 to further promote the objectives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o commemorate the inscription of <Jikji Simche Yojeol> in 2001. This UNESCO Jikji Prize has been awarded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preservation and accessibility of documentary heritage every other year since 2005, and the prize and expenses are all covered by Cheongju. In addition, thanks to Jikji, the UNESCO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 was established in Cheongju, where Jikji was born. The UNESCO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 was confirmed to be established in 2017. After completing the foundation procedure in July 2020, it is expected to be built in 2023 with a total floor area of 2,307 square meters, with one basement floor and four above-ground floors.

It is a new institution under UNESCO and the fir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UNESCO documentary heritage. The Center projects to develop a monitoring system for Memory of the World inscriptions, train documentary heritage experts,

establish a digital archive platform, create educational contents, support collection,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cords. It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post-management of records registered as World Documentary Heritage and in charge of related policy research. Cheongju also has the MMC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eongju), Cheongnamdae Presidential Villa, and Sangdangsanseong Fortress.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MMCA Cheongju. Although Cheongju has many cultural facilities such as the Cheongju National Museum and Cheongju Culture and Arts Center, the MMCA Cheongju has a unique feature. It is a facility where visitors can view various art pieces preserved in an open storage. The MMCA consists of four museums: Gwacheon, Deoksugung, Seoul, and Cheongju. The open storage system is a unique feature only found in the Cheongju Museum. Opened in 2018, the MMCA Cheongju was originally planned as a storage and preservation center for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However, the mayor of Cheongju at the time pointed out the lack of cultural facilities outside the Seoul Capital Area, and insisted on opening the MMCA museum in Cheongju to the public. This idea was approved and with supplementary funds provided, the MMCA Cheongju opened after a preliminary survey. As it was initially designed as a storage space, the museum became an open storage structure as we see today. This trend spread worldwide and since the 2000s, many famous museums and art galleries are also exhibiting their storage area. The interior facilities consist of a permanent exhibition hall, a storage room, a special storage room, a special exhibition hall, and some of the storage items are open to visitors. The museum can store a total of 11,000 art pieces, and is currently holding 4,000 pieces from the Seoul MMCA, half of their collections, as well as about 2,000 pieces of artworks from the government and Art Bank, which totals to 6,000 pieces are stored or exhibited.

Now, I would like to introduce Cheongnamdae, which means the Blue House of the south. As you may know, the Blue House is the office and residen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heongnamdae gained its name as a villa fo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bout 20 years from 1983 to 2003. It is the place where five presidents, including Chun Doo-hwan, Roh Tae-woo, Kim Young-sam, Kim Dae-jung, and Roh Moo-hyun, took a break away from Seoul to contemplated government affairs. Since its opening to the public in April 2003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t is now a famous president themed tourist attraction. Cheongnamdae has various facilities such as the Presidential History and Culture Center and Plaza, and has a beautiful scenery thanks to its location along Daechongho Lake. Except for the main building where pictures are not allowed, other places are completely open to the visitors.

The last place I would like to introduce is Sangdangsanseong Fortress. As you know, a fortress is a castle built on a mountain. Sangdang is the old name of Cheongju, but according to Goryeo history, the name was given when Baekje first occupied the Cheongju area. Originally built as an earthen fortress in the Baekje era, Sangdang was reconstructed as a stone fortress in 1716 during the time of King Sukjong of the Joseon

Dynasty. In many large cities of Korea, the fortress walls are torn down or destroy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However, since Sangdangsanseong Fortress is locate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not only the original shape of the fortress during the Joseon Dynasty but also the surrounding natural scenery and the transportation route are well-preserved. Therefore, the Sangdangsanseong Fortress is a cultural heritage with high historical value as a fortress that retains not only the architectural form but also the landscape of Korean Peninsula. Like many other fortresses that have endured a long time, the walls are damaged with unearthed stones that reveals the shabby foundation, but these are also considered as good historical feature. The beautiful stone walls that have aged graciously provides an excellent visitor's spot. The Cheongju city center can be seen from the top of the Sangdangsanseong Fortress, many recreational facilities, tourist facilities and restaurants are located along the trail. The castle is surrounding a small valley, and the village inside the fortress also seems to sell various local foods.

The area around Chungcheongbuk-do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 was called Jungwon area and was the battleground of the Three Kingdoms era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and given this historical background, there are many Border Defense Cultural Relics. In addition, it was included in the tentative list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under the name of Jungbu Inland Fortress Group. Samnyeonsanseong Fortress, Sangdangsanseong Fortress, Chungjusanseong Fortress, Jangmisanseong Fortress, Deokjusanseong Fortress, Ondalsanseong Fortress, and Mireuksanseong Fortress were included on the list. The tour of Cheongju, the provincial capital of Chungcheongbuk-do ends here. In the next 3rd class, we will look around Jincheon and talk about Korean sports culture.

The Third Session | The Story and Cultural Resources of Jincheon

We will visit Jincheon city today. Jincheon is a fast-growing city in Chungcheongbuk-do after Cheongju, with swift development and growth compared to nearby local administrations, and higher population growth rate at the district level. From olden days, Jincheon had a good reputation that there is even a saying 'one must live in Jincheon when alive'. This reputation continued throughout the agricultural era as Jincheon had minimum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and was the site of a granary called Jincheon Plain that often yielded rich crops. In order to resolve the centralization and overcrowding of Seoul Capital Area, South Korea launched the Innovation City Project since 2007, which led the Jincheon's population growth. The Innovation City Project relocates public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o other regions than Seoul and the Seoul Capital Area to spread out the population. It is an urban plan to establish a planned city in the provincial area and foster it as a hub for regional development, by relocating 153 institutes to a total of 112 innovative cities. Jincheon-gun succeeded in becoming an innovation city in Chungbuk, jointly with Eumseong-gun, hosting 16 new institutes, and the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Fire Hospital. Moreover, in the Chungbuk Innovation City project between Jincheon and Eumseong, Jincheon-gun is especially enjoying the benefits of population growth. Jincheon recorded a population growth rate of 3.66% in 2019 due to large-scale public houses built in the innovation cities of Jincheon area. This growth of population ranked 5th among cities in the country and 1st among non-metropolitan cities. In addition, Chungbuk Innovation City is the youngest city among innovation cities in the country, with an average age of 31.5 years old, recording the highest percentage of young people. Accordingly, the downtown areas of Chungbuk Innovation City are filled with kids cafes, pediatric hospitals, cafes, an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Jincheon is famous for temples, ecological parks, the Birthplace of General Kim Yushin, Nonggyo Bridge; a stone bridge over a thousand years old, natural recreation forest, parks and Chopyeongho Lake.

Nevertheless, if you ask Koreans to pick the most famous facilities in Jincheon, they will probably refer to the Jincheon National Team Training Center, which is called the Jincheon Athletes' Village. Jincheon National Team Training Center, often referred to as the Jincheon Athletes' Village, this is a professional training camp established for the training of Korea's national sports players. Jincheon Athletes' Village is the second national athletes' village built after the Taereung National Training Center located in Nowon, Seoul. This was built because of the circumstances of Taereung National Training Center, and had no relations with the Innovation City Project. For the context of the story, let us travel to Taereung National Training Center before we explore the Jincheon Athlete's Village. Back in 1964, the 18th Olympic Games was held in Tokyo. At the time, the Republic of Korea wanted to secure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support



the South Korean team as a system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They sent a fairly large team to the Tokyo Olympics compared to the national situation, consisting of 165 athletes and 59 board members. This was a huge team, given that 36 athletes and 31 board members were sent to the 1960 Olympic Games in Rome, and 55 athletes and 21 board members went to the Mexico City, in 1968. At this Tokyo Olympics, the Korean national team set the record for the most medals in the history, two silvers and one bronze medal. Although they achieved the best in the Korean history, it was rather a disappointing result for the largest-ever squad they had sent. So,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t the tim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lack of a comprehensive sports training facility is a major reason for the poor outcomes. This was the result of benchmarking the government operated, elite-based national training systems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during the Cold War. The Korean government selected the site near Taereung Royal Tomb of Queen Munjeong of the Joseon Dynasty, and in June 1966, the construction of the Athletes' Village began. With time, the Taereung National Training Center was further enlarged by hosting the Seoul Asian Games in 1986 and the 24th Seoul Olympics in 1988. Since then, it has continuously expanded until the Oryungwan, an indoor training center for handball, badminton, and athletics, was built in 2000, and has earned its reputation as Korea's only national sports training center.

However, the Taereung National Training Center reached a major inflection point in 2009. This is because, in June 2009, 40 tombs of Joseon royal families in 18 Joseon royal tombs, including Taereung and Gangneung Royal Tombs, were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name of Joseon Royal Tombs. At the time, UNESCO agreed to designate a World Heritage Site on the premise that the scenery viewed from the tomb should be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landscape at the time the tomb was built. As a result, the Taereung National Training Center, which had been built by invading the Taereung and Gangneung Royal Tombs of Joseon, had to be relocated. In fact, the issue of the relocation of the Taereung National Training Center has repeatedly raised even before 2009. As many facilities in the center were outdated, extensive remodeling was inevitable. Furthermore, preparations to apply the royal tombs of Joseon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had been in progress. Since 2003, plans to build an athlete's village to replace the Taereung National Training Center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In 2004, Jincheon, Chungcheongbuk-do, was selected as the site for the national athletes' village from several preliminary candidates. Jincheon, a small city with a population of 70,000 at the time, was determined to attract the national athletes' village as one of the core driving projects of the city for urban development.

As a matter of fact, the national athletes' village can be a very attractive institute fo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lthough the name was originally derived from the royal tomb of the Joseon Dynasty, Taereung has been exposed as the national sports team's hometown through media over the past 40 years. The word Taereung has now become a symbolic word to refer to the national sports team. As a historic place that has been

the hub of sports in Korea since the 1960s, it was naturally recognized as a dream destination and training place among athletes. The public's recognition of Taereung as the center of national athletes has been continuously strengthened by the annual, biennial world championships as well as the quadrennial Olympic Games. Therefore, attracting a new national athlete's village is not just about enjoying the economic benefits from national teams and staffs, but in a long run, to be introduced as a capital of Korean sports to the athletes and the public. It could also expect huge positive impact on the branding effect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y. Jincheon was finally selected as the site for the new national athlete's village with many advantages.

The first step of the construction of Jincheon Athletes' Village's began in February 2009, ahead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designation of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and was completed in August 2011. The second step of the construction took place between December 2013 and September 2017, and finally, on September 27, 2017, Jincheon Athletes' Village was officially open. A total of 500 billion won was invested in the construction of Jincheon Athletes' Village and with a land area of 1,635,891m², which is five times the size of Taereung National Training Center. There are swimming pools, cross-country track, clay shooting range, indoor shooting range, sports complex, basketball court, baseball field, softball field, canoe training center, rowing training center, indoor tennis court, archery training center, ice skating training center, cycle race track, athlete's center, physical training center, accommodation, subsidiary facilities, throwing field, rugby training field, and hockey training field, where 35 different sports can train. Almost all Olympic sports training are available, with the exception of some sports such as soccer, where the association already has its own specialized training facilities. Jincheon Athletes' Village came to the limelight from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s you can see, the Republic of Korea is still operating the athletes' village system by maintaining the support, in order to assist unpopular sports that are difficult to develop on their own. The huge external factor of designation of Taereung and Gangneung as a World Heritage Site prompted the removal of Taereung National Training Center, and the very existence of an athletes' village could have faced different consequences. However, the newly built Jincheon Athletes' Village was provided a huge investment of financial resources, showing Korea's unwavering perspective on sports and national athletes.

The expression 'elite sports' is actually one of the Konglish(Koreanized English) that is a made-up Korean term. From a young age, young talents in each sport are recruited and spend the entire curriculum from elementary to higher education receiving intensive and systematic elite sports training from professional instructors. In this elite sports system, government subsidies are provided to athletes of unpopular sports, and in some cases, sponsorships or advertisements are signed from related companies. In other words, this system helps athletes to focus only in their training, even in sports that do not have a professional league, similar to a youth development program. Elite sports refers to this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supports the athletes in various ways, with taxes. In fac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tensively support athletes in a

similar system, especially in the Olympic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Jincheon Athletes' Village, Jincheon will now play a practical and symbolic role as the center of Korean sports for decades to come. The sweat, tears, will and effort of many athletes are expected to bear fruit here in Jincheon. The story of Jincheon ends here. In the 4th class, we will visit Chungju and Jecheon and explore the story resources scattered throughout the region.

The Forth Session | The Story and Cultural Resources of Chungju and Jecheon

In this 4th class, we will look around Chungju and Jecheon and discover the story resources spread throughout the area. Shall we go to Chungju first? Chungju is locat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Chungcheongbuk-do with a population of 0. 21 million, and is the second largest city in Chungcheongbuk-do. The word Chung in Chungcheong-do is derived from Chungju. It is a mountainous area far from the sea and a basin surrounded by mountains including Woraksan Mountain, so the daily temperature difference is pronounced. Therefore, the local agricultural specialty of Chungju is the sweet apples. Chungju has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strategic location since ancient times, as it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region was always occupied by the most powerful country of the time. From the Three Kingdoms era, Chungju belonged to Baekje until the 4th century, but as King Gwanggaeto Daewang of Goguryeo drove out Baekje and took over the area, Goguryeo called this place Gukwonseong Fortress.

Then, in 551, King Jinheung of Silla expanded the territory and occupied the Chungju area. Afterwards, Silla designated Chungju as an administrative level of Sogyeong in 557, which is roughly equivalent to the status of a metropolitan city now. In 558, the wealthy people who lived near the capital, Seorabeol, were relocated to Gukwon to expand the city. Before Silla's Conquest of the Three Kingdoms, Chungju was Gukwongyeong, which was one of the two Sogyeongs. After the Silla Conquest of the Three Kingdoms, it was named Jungwongyeong, meaning 'the center of the land', as one of the five Sogyeongs. The National Treasure No. 6 in Chungju, the Seven-story stone pagoda in Tappyeong-ri, Chungju, was built during this time. showing that this place was the center of the country of Silla. Among the cultural heritages remaining in Chungju, those related to the Three Kingdoms era have a high reputa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Jangmisan Mountain Fortress, Chungju Goguryeo Stele, and Tangeumdae briefly as the representatives. First of all, Jangmisan Mountain Fortress is a fortress from the Three Kingdoms era. This area was occupied by various countries, so numerous opinions exist on who had built this fortress. In the past, many thought it was a Goguryeo fortress, but evidence from excavations show that it was built by Baekje, occupied by Goguryeo for a while, and then Silla finally took over. This Jangmisan Mountain fortress is included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The Chungju Goguryeo Stele is the only existing Goguryeo stele monument in Korea. Goguryeo reached its heyday when King Gwanggaeto Daewang who reigned from 391 to 412, pioneered the northern region, and his son, King Jangsu, who reigned from 412 to 491, promoted the southward expansion policy. The Chungju Goguryeo Stele was erected by King Jangsu while he took control of the Jungwon area. The stele is a natural stone pillar that is 203cm high, 55cm wide with a left side-width of 33cm, and all four sides are inscribed with texts. It is a smaller version of the stele of King Gwanggaeto of



Goguryeo, located in Manchuria, China. On the stele, a total of 528 characters are engraved, with an average of 23 characters per line. Due to abrasion, the texts were extremely difficult to interpret, but the general content was that it was a monument that marks the boundary of Goguryeo. It is a declaration that Goguryeo took over Wiryeseong, the capital of Baekje, and occupied the centr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tending its territory to the Chungju region. The Chungju Goguryeo Stele is a valuable monument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guryeo, Silla, and Baekje during the 4th and 5th centuries, and is designated as the National Treasure No. 205.

The Chungju Tangeumdae is a historical site related to Woo Reuk of Gaya during the Three Kingdoms era and General Shin Lip of Joseon during the Imjin War. Gaya is a coalition of ancient countries including Daegaya, Geumgwan-gaya, Aragaya and Sogaya, and exis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AD 42 to 562. Woo Reuk is a musician who was born in Daegaya and invented a musical instrument with 12 strings called Gayageum. Along with Wangsanak and Park Yeon, Woo Reuk is considered one of the three greatest musicians in Korean history. As a musician, Woo Reuk organized and composed unique music with local characteristics of each Gaya country. Around 551, when Silla was expanding its territory, Woo Reuk moved from Gaya to Silla with his disciples. King Jinheung of Silla appreciated and praised his performance and Woo Reuk was given a residence in Gukwongyeong, which is now Chungju. Woo Reuk settled in the Chungju area, in a mountain with Namhangang River winding along the cliff filled of dense pine forests, and played Gayageum in front of young people of Silla. Legend says that people who heard his music fell in love with the charm and tone of the gayageum and came to live in this village. The area where Woo Reuk played the gayageum was called Tangeumdae, meaning 'the place Woo Reuk played the gayageum'. Tangeumdae was also the battlefield during the Imjin War in 1592, where the commander Shin Rip and his 8,000 soliders faced the Japanese troops of Kato Kiyomasa and Konishi Yukinaga. We will talk about the Imjin War in detail later in the 6th and 8th week, while exploring Jeollanam-do and Gyeongsangnam-do. For now, we can just remember the Imjin War as a war provoked by Hideyoshi Toyotomi of Japan invading the Korean Peninsula to conquer Joseon and Ming. A cliff by the Namhangang River to the north of Tangeumdae Terrace called Yeoldudae (Twelve Story Rock) is where General Shin Rip went up and down 12 times during the war to soak the string of the bow and encourage the soldiers. Despite the efforts, he was defeated after a fierce battle, and killed himself by jumping into a river

Next, we will go to Jecheon. Jecheon belongs to Chungcheongbuk-do, but has a strong identity of Gangwon-do rather than that of Chungbuk's. This is because throughout time, Jecheon and the southern part of the Gangwon province have had many active exchanges. Therefore, the language and culture of this region share more similarities with the southeastern part of Yeongdong rather than Chungcheong-do. Jecheon has grown as a city functioning as a transportation hub connecting Yeongwol, Jeongseon, and Taebaek in Gangwon-do, and has shared its identity as a cement production area with southern Gangwon-do. Nevertheless, Jecheon is a city carrying a certain important

symbolism when discussing Chungcheong-do. As I briefly mentioned in the first session, Hoseo is another old name of Chungcheong-do meaning 'west of the lake', and Jecheon is the city where this lake, Uirimji Reservoir, is located. This symbolism is also reflected in the name of the city, as the word 'je' from Jecheon means embankment. Consequently, the name Jecheon literally means the city of Uirimji.

Uirimji is one of the oldest reservoirs in Korea along with Byeokgolje in Gimje and Susanje in Miryang. Unlike the other two reservoirs, Uirimji is still in use for irrigation agriculture, extending its longevity. Some say that Uirimji was built during the Three Hans Period and others say that it was built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any case, Uirimji is a lake and reservoir with a long history, proven by sedimentary evidence indicating that the lake has maintained its shape since about 2,000 years ago. With such a long history,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Uirimji was initially a natural lake or created as an artificial reservoir. However, it is certain that since agriculture started on the Korean Peninsula, Uirimji has been a key irrigation facility to the area, and supplied water to the local residents in the thousands of years of agricultural history. The most important part of Uirimji is actually the embankment rather than the lake itself. The embankment of Uirimji was raised higher and taller over time. The same construction methods as Mongchontoseong Earthen Fortification and Pungnap-toseong Earthen Fortification in Seoul were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embankment, which lays reeds and branches on the soft ground and pour soil to harden the embankment or rampart. Building a large embankment using this method was a very laborious process in the days when no large construction equipments were available. Nevertheless, the fact that an embankment of this size was born reflects that either it was conducted by a powerful man in Jecheon area at the time, or Uirimji was an important national facility.

Today, an artificial waterfall is built on one side of Uirimji, and a natural waterfall called Yongchupokpo Falls, which is more than 10 meters high, is located a little south of the artificial waterfall. The Yongchupokpo Falls is the place where water flows out, but only in cases where the reservoir has more water than necessary due to rain or when water is pulled up with an artificial pump. The glass observatory above Yongchu Falls have sensors installed on the pillars that turns the opaque glass transparent when you pass through them, so that you can overlook the waterfall. As you can walk while watching the cool water pouring under your feet, this observatory provides both the dizzying feeling of walking over a waterfall and the coolness of the water at the same time. Uirimji's water freezes more than 8 centimeters in winter, and people often enjoy sledding on the ice or ice fishing for smelt. Uirimji is a symbol and landmark of Jecheon, and the screening hall is set up for th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and Film Festival. It is also the first place among the 10 tourist attractions recommended by Jecheon. With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Uirimji has been a life-supporting water supply to Koreans, and has now become a famous recreational area for nearby residents, as a picnic spots for families and friends or a walking trail. In addition, the Uirimji History Museum was built in 2019 on the north side of Uirimji, explaining its

history, culture, and ecological values, and reflecting Uirimji as a part of people's daily lives. Did you have fun with Chungju and Jecheon? Next time we will head to Boeun. Let's see what other stories are waiting for us.



The Fifth Session | The Story and Cultural Resources of Boeun

In this 5th class, we will head to Boeun. Boeun-gun is located in the south-central part of Chungcheongnam-do. It is a small city with a population of about 32,000. Until the Joseon Dynasty, Boeun was a major transportation hub connecting Sangju and Cheongju, where many people frequented. In 1905, the Gyeongbu Line was built away from Boeun, and the main transportation route between Gyeongsang-do and Chungcheong-do changed to Chupungryeong, which reduced the size of Boeun. It has a basic local government that is at risk due to the continuous decline in population. In terms of living area, it is under the influence of two big cities, Cheongju and Daejeon, but is closer to Cheongju aside from some western parts. Some places you must visit in Boeun include Beopjusa Temple and Samnyeonsanseong Fortress.

First, Beopjusa is a Buddhist temple built in Songnisan National Park. It was founded in 533 during the reign of King Jinheung of Silla by a Buddhist Monk Uisin, who had studied in the Tang Dynasty. When he returned to Korea, he brought a number of Buddhist scriptures from the Western regions, and this temple was named Beopju, meaning 'Residence of Dharma'. In 776, it was rebuilt on a large scale by Buddhist Monk Jinpyo, and the current size was established in the Goryeo period. However, in 1597, the temple was burned to the ground during Jeongyujaeran (Chongyu Wa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624, the remaining structures were rebuilt under the leadership of Buddhist Monk Samyeong and Buddhist Monk Byeogam. Recognized for its great academic value as a relic of faith, the temple is designated as Historic Site No. 503, and in 2018, along with Tongdosa Temple in Yangsan, Buseoksa Temple in Yeongju, Bongjeongsa Temple in Andong, Magoksa Temple in Gongju, Seonamsa Temple in Suncheon, and Daeheungsa Temple in Haenam, it was register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under the name of Sanji Monastery in Korea. Beopjusa Temple is famous for its Palsangjeon Wooden Pagoda, the only remaining wooden pagoda built before modern times. Also, it is an important temple that holds a huge 33m-tall Gold-bronze Maitreya Buddha statue and other various cultural heritages, such as the Palsangjeon Wooden Pagoda, Twin Lion Stone Lantern, Stone Lotus Basin that are registered as national treasures, and Jeongipumsong Pine Tree, a natural monument. Palsangjeon Wooden Pagoda, National Treasure No. 55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wooden pagoda that was reconstructed in 1624 after it was destroyed by the Japanese during Jeongyujaeran. It is 22.7m tall with square layers with 5 floors. Buddhist pagodas can be divided into wooden pagodas, brick pagodas, and stone pagodas. The period when wooden pagoda reached its heyday was during the Three Kingdoms era and the Goryeo era. However, Palsangjeon was reconstructed around the mid-Joseon Dynasty after both of these times. So its appearance and structure are quite unusual. , unlike a typical ancient wooden pagoda.

A typical wooden pagoda includes a huge pillar called a 'shimju' in the middle, which



supports the metal decorations installed on the top of the pagoda. The segmented structures of each floor are combined with the core, and each column stacked on each floor distributes the load to support the tower. However, the Palsangjeon Wooden Pagoda in Beopjusa Temple has a continuous structure of long pillars that support the load from the first floor to the top, centering on the core pillar, "shimju." The Twin Lion Stone Lanterns of Beopjusa Temple are listed as the 5th National Treas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se stone lanterns were made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Like other stone lanterns, the top and bottom layers are octagonal, but a pair of male and female lions were carved to form the pillars. The two lions stand chest-to-chest with their front paws up, forming a stable X-shape when viewed from the side. Stone lanterns with twin lions were made during the Unified Silla, and several more such lanterns remain, but those of Beopjusa Temple are considered to have better symmetry and sculpture. The lion lifts the stone lantern, which symbolizes Buddha's truth, to protect and safeguard the Buddhist rules. Seoknyeonji (Stone Lotus Basin) of Beopjusa is Korea's National Treasure No. 64, which is a lotus-shaped granite stone created in 720 in the Silla Dynasty after the conquest of the Three Kingdoms. Seoknyeonji' means a small pond made of stones, and it refers to a landscape stone that contained water and floated lotus flowers during the Silla Dynasty. It has a height of 1.95m and a circumference of 6.65m, with the base made of octagonal stones. The concave middle part has a cloud-shaped stone, with the large Seoknyeonji stone basin atop. It has been praised for its excellent state of preservation, exquisite sculptural technique, and sophisticated molding. Seoknyeonji of Beopjusa Temple is considered an important artifact as a representative work of Seoknyeonji in Korea, reflecting the prosperous stonework art of the Silla era.

Songni Jeongipumsong Pine Tree of Boeun, the Natural Monument No. 103 of Korea, is a huge pine tree that can be found on the way to Beopjusa Temple. It is a pine tree that is about 600 to 700 years old, with a height of 16.5m and girth of 5.3m. There is an old story regarding this tree related to King Sejo, so this tree is a famous natural monument to Koreans. The story that links this pine tree to King Sejo is the following. In 1464, King Sejo passed under this tree when he came to Beopjusa Temple in Songnisan in the tenth year of his reign. However, since the pine tree was huge and the branches were hanging down, the king's palanquin could be damaged by the branches. Legend has it that the moment the servants warned that the palanquin will get caught by the branch, the pine tree raised its branch allowed the king to safely make his way. Moved by the fact that the pine tree, a mere plant, recognized the king and moved its branches, King Sejo conferred a second-class post(Jeong-i(2)pum) to the pine tree, which is equivalent to today's ministerial level. This has been a famous story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However, as King Sejo is being negatively re-evaluated in modern days, many people now have a critical view on this story. Sejo is one of several sons of King Sejong, and is the younger brother of Munjong, who succeeded after King Sejong. However, when Munjong died at an early age not long after ascending to the throne, and his young son Danjong followed the throne, Sejo politically isolated him to

eventually usurp the throne. Given this historical context, some point out that the story of Jeongipumsong may have been a propaganda that Sejo created to spread a positive narrative of himself to justify his coup. So, the long-standing reputation of Jeongipumsong has faded to some extent, along with its value as a historical storytelling and tourism material for cross-validation. This is also because the Odaebusong (Five Senior Official Pines) of Taishan and the Younggaeksong of Huangshan in China have similar stories. Nevertheless, the biological value of Jeongipoomsong Pine Tree is quite notable, as in East Asia, pine trees were used as building materials, firewood, and by-products such as resin, that old pine trees are a rarity. In this respect, Jeongipoomsong, which has been protected by the royal family and the government for hundreds of years, is a valuable biological genetic resource dating from the Middle Ages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tree was originally famous even for its beautiful shape, with a straight central stem and unique shape like a mushroom or an umbrella, displaying a beautiful and magnificent appearance. However, in 1993, the west part of Jeongyipumsong Pine Tree was broken by strong winds, and now it has lost its former grandeur. Since it is a very famous and beautiful pine tree with high biological value,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of Korea has made efforts to preserve the lineage of Jeongipoomsong since 2001. Pine trees have separate male and female flowers on the same tree. Self-pollination of female flowers with their own pollen can create a pure lineage, but inbreeding often fail to produce seeds or create offsprings that do not grow properly. So,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selected 5 pine trees from the candidates in Samcheok, Gangwon-do for mother trees, and held a wedding ceremony with Jeongyipumsong in 2001. In order to prevent pollination with other pollens, the female flower of the mother tree is covered with a paper bag to pollinate the pollens only from Jeongyipumsong. This process finally brought a first son pine tree, and after DNA sequencing, it was finally confirmed in October 2008 that this pine tree was the real offspring of Jeongyipumsong.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also announced a blueprint to distribute about ten offspring trees to meaningful places such as the Independence Hall or the National Assembly.

Next, let's take a look around Samnyeonsanseong Fortress. Samnyeonsanseong was a fortress carefully built by Silla to serve as an outpost fo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Records show that about 10 million blocks of granite were used to build the castle. According to the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it was named Samnyeonsanseong as it was completed in 470 after 3 years of construction. Samnyeonsanseong Fortress was built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5th century, when Baekje and Silla united to block Goguryeo's southern advance. The circumference of this fortress is about 1.8 km, and the walls are made of flat stones that are stacked horizontally in one level and vertically in the next, to make it sturdy and robust. The height of the wall varies slightly depending on the terrain, but is at least 10m, which is very elevated. While most of the fortresses of Joseon Dynasty are generally low, the Samnyeonsanseong Fortress has tall walls suitable to a fortress. To support the load of

the high, giant walls, stones were stacked in 4 stair-like levels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at the corner of the walls where the loads are heavier. This Samnyeongsanseong Fortress had a reputation as an impregnable thousand-year fortress. Official records in the history books show that the fortress boasted an overwhelming defensive power of 149 wins and 1 loss. Not only Baekje, but even Goguryeo, who defeated the Sui and Tang dynasties, failed to capture this fortress. Later, even King Taejo of Goryeo, Wang Geon, attempted to seize the fortress occupied by Later Baekje in 928 at his 11th year of his reign, but failed in the end. The only loss was during Kim Heon-chang's Rebellion in 822, where he was defeated and captured by the government forces at Samnyeonsanseong Fortress. This loss is only mentioned in a single line in the history book, so the process of the battle how the fortress was captured are still unknown. Since it was one of the most impregnable fortresses in Korea, many historians guess that it was most likely an insider's betrayal.

The Samnyeonsanseong Fortress is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stone fortress, reflecting the construction technology of Silla in the 5th century. It is one of the fortresses that belongs to the central inland fortress group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Today, we looked around Cheongju, Jincheon, Chungju, Jecheon, and Boeun located in Chungcheongbuk-do, and shared various stories related to these regions. Next time, we will go to Daejeon and Chungcheongnam-do to look into various regional stories from past to present. Thank you for your work today, and see you again next time.

| Chinese Script

第一课时 | 引言

大家好,我是韩国庆熙大学的金世益,接下来我将与大家一起从文化内容的层面上分享韩国文化和韩国故事。这次是我们了解韩国叙事和文化绘图的第三节课,让我们来了解一下分散在忠清北道的故事和文化资源。以前,忠清道、全罗道、庆尚道等位于韩半岛南部的三条道被捆绑在一起,"三南"或"三南地区"的表述被广泛使用。三南地区与传统韩半岛南部地区的范围几乎重叠,从面积上看约占韩半岛总面积的32%。将韩半岛分为北部地区、中部地区、南部地区时,作为代表南部地区概念性的三南地区这一表述被广泛使用。但是到了现代,韩半岛迎来南北分裂之后,三南地区这个词就不太被使用了。因为南北分裂以后,以大韩民国为基准,三南地区约占实际国土70%以上,比重变得过大。因此,现在各道分别称呼的倾向越来越强,由于首都圈集中化现象的出现,甚至出现了将全国分为首都圈和非首都圈,即出现了首都圈和地方的说法。因为三南地区即忠清道、全罗道、庆尚道地区自古以来气候温暖,广阔的平原地带较多,是耕种较好的沃土。所以甚至出现了"三南丰收天下不挨饿"的俗语。我们打算在本周和下周一起了解其中的忠清道,毗邻西海的大韩民国的中南部地区。

第一周我们简单地了解了大韩民国各地区的别称,例如湖南、岭南等词语。除了至今仍被广泛使用的湖南、岭南之外,今天我们来了解一下忠清道也曾被称为湖西,但湖西一词现在不被广泛使用了。第一周的时候我们曾讲过,湖南这个名称的意思是指湖的南部地区,这时作为划分基准的这个湖是金堤的碧骨堤。湖西就是湖的西面的意思。有趣的是,很多人以堤川义林池湖作为划分湖西的标准。碧骨堤和义林池都是为了农业而人工建造的水库,因为都是规模巨大的水库,前近代时期其他地区的人们也熟知它们的名声。今后我们将通过上课时间进行分别了解。忠清道、全罗道、庆尚道在行政上分别分为南道和北道进行管理。从地图上可以看出,与实际分为南部地区和北部地区的全罗道和庆尚道不同,从忠清道可以看出,南道和北道位于几乎相似的纬度,甚至让南北的表述黯然失色。无论怎么看都是东西分割,不是南北分割,但这个道的名字被确定为忠清北道和忠清南道,其实是为了与其他道保持统一性。忠清道最初是东西较长的领域,所以应以东西分割。

1896年大韩帝国首次将韩半岛全境划分为13个道的行政区域,南道和北道的划分是以当时忠清道代表性城市忠州市和江景邑的位置为基准,确定了忠北和忠南的名称。稍微补充一下的话,朝鲜传统上将全国分为京畿道、忠清道、全罗道、庆尚道、江原道、平安道、黄海道、咸镜道8个道来管理和运营行政组织。到了1896年,原有的8个道中,除京畿、江原、黄海以外,其余的道均分为南北道,形成了共13个道的体系。南北分裂以后,韩国将原来属于全罗道的济州岛指定为另外一个道;北朝鲜将黄海道分为南北两部分,新建了慈江道和良江道,落实了现在的体制。所以以现在为基准的话,韩国有8个道,北朝鲜也有8个道。所以在韩国指称全国时,从朝鲜时代开始使用的八道这个词,至今也经常使用。因为这既是指韩半岛全境,又是指大韩民国全境。

但事实上,忠清道这个名字仅在朝鲜时代就更换了将近20次。主要以忠州、清州、公州、洪州为中心,忠公岛、清公岛、清红岛、忠红岛、共青岛等几乎所有可能出现的组合都交替更换过,最终确立使用最初名称忠清道。一想到朝鲜承包行政区域的名称是区域内两个代表性城市的名字组合而成,忠清道频繁更改名称可以解释为,忠清道区域内没有不可替代的核心中心地。忠清道位置上与首都圈相邻。得益于此,忠南天安、牙山地区与首都圈相邻,形成了独立的都市圈同时日常生活圈的交流也正在向水原、仁川、首尔方向活跃发展。大田和清州同样也是与首都圈的交流较多的地方,相反,岭南圈或湖南圈与首

都圈的交流较少。因此，忠清道与其他地区不同，地区色彩较少。特别是忠清道人口构成中相当一部分是忠清道土著居民其中也有一些首都圈、岭南、湖南、江原道出身的人。所以江原道、全罗道、庆尚道、济州岛、甚至首尔或京畿道地区都存在某种独特的地区特色，而忠清道地区是唯一没有特别突出的地区特色的地区。

忠清道的大生活圈分为大田圈、内浦-天安圈和忠北圈。但是忠清道内陆地区特别是以京釜线铁路和京釜高速铁路、京釜高速为中心的，即以京釜轴为中心的城市化发展程度非常明显。因此，以大田圈和内浦-天安圈为中心，忠清道的三大城市大田、清州、天安聚集了300万人口，占忠清道总人口的一半左右。因此,今天可以了解到忠清北道是因以清州圈为中心发展而导致清州圈和其他地区的差距非常大。忠清北道160万人口中清州市人口为85万人,占了一半以上。今天,我们将了解位于忠清北道的清州、镇川、忠州和堤川以及报恩,以及关于这些地区的各种故事。今天我们的学习目标是了解忠清北道所累积的叙事起源和脉络，了解现存至今仍具有持续影响力的各地故事。来理解居住在该地区的市民们的想法和生活，将忠清北道的文化绘图直接视觉化。

为此，今天的核心问题如下。第一，忠清道的主要城市和围绕该城市的人文社会脉络是如何变化的？第二，忠清北道内各城市的历史进程如何，现今在道内的地位和作用如何？第三，地区地标对该城市的本质和形象有何影响？我们带着这些问题一起去了解忠清北道地区。一起开始吧。

第二课时 | 清州故事和文化资源

第二课时我们一起去了解清州。清州位于忠清北道的中西部地区，是忠清北道道厅的所在地，也是忠清北道最大的城市。清州是继直辖市大田之后忠清圈的第二大城市，也是忠清北道的政治、经济、社会、文化的中心。就像我说过几次一样，清州的清字就是来源于忠清道。我刚才在第一课时说过，忠清北道虽然位于韩国国土的中心地带，但一直以京釜线铁路、京釜高速铁路、京釜高速公路等所谓的京釜线为中心而发展的。所以在1990年代后期以后开通的中央高速公路或中部内陆高速公路建成之前，通过清州的京釜高速公路和中部高速公路是道内唯一的京釜方面的基础设施。所以忠清北道的开发投资一直以清州市为中心，现在忠北的大部分基础设施都集中在清州市。

因此，目前清州市的经济规模已经发展成为了广域市级的大城市。以2018年为基准，清州市的地区生产总值突破了34万亿韩元，与约37万亿韩元的光州广域市规模相似，仅次于附近的生产总值约39万亿韩元规模的大田广域市。现在的清州是京釜高速公路和中部高速公路、全国唯一的KTX京釜湖南线岔口站五松站和忠清圈唯一的国际机场清州国际机场等所在的交通枢纽地段。尤其在下一个课时，我们会了解行政中心综合城市的世宗市，其中KTX五松站是世宗市的关键性铁路站。与此相关的临站地区开发事业以及五松生命科学园地都在建设中。还有清州从2011年开始举办了涉及陶瓷、木漆、纤维、金属等工艺所有领域的清州工艺双年展。

在清州市常见的名词之一是直指。清州市的大路即直指大路或直指小学等就是代表性的例子，这里直指不是地名，而是世界最早的金属活字印刷本《直指心体要节》的简称《直指》中由来的。现存的《直指》是高丽时代1372年在清州的寺庙兴德寺开始制作，于1377年发行的印刷品，共分两本书其中的第二本。以发行时间为准的话这是一本比约翰内斯·古登堡发行的金属活字本圣经早约78年的册子。根据记载，《直指》之前也曾存在过1234年上呈古今例文等金属活字印刷品，可惜这些印刷品被烧毁，无法传入现代。目前现存世界上最古老的金属活字印刷品就是这个《直指》。

这个《直指》的实物现收藏在法国国立图书馆。大韩帝国当时担任驻韩法国公使的维克多·科兰德·普朗西是古籍收藏狂。据说，普朗西因自己的爱好在街上购买了《直指》，经过多个阶段后送到了法国国立图书馆。但据说，不仅是当时，直到1960年代之前，这个《直指》的真正价值谁都不知道。在1866年丙寅洋扰当时，从1967年开始在法国国立图书馆担任13年图书管理员的韩国人朴炳善博士有一天偶然在这个法国国立图书馆发现了法军掠夺的外奎章阁《朝鲜王室仪轨》和《直指》。朴炳善博士独自反复研究，察觉到这是不寻常资料，查明了该《直指》是世界上最古老的金属活字印刷品的事实。世界上最早的金属活字印刷品是指首次采用像今天这样活版印刷技术的印刷品，具有重大意义。因此，该《直指》于2001年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入世界记忆遗产名录。作为现存最古老的金属活字本，其价值得到了认可。但是对此稍微冷静地评价的话，虽然是世界上历史最悠久的，但很难说是世界上最优秀的。

《直指》只是最古老的金属活字印刷品，如果考虑它对后代的印刷术和整个社会的影响力，不能认为它超越了古腾堡活版印刷术的成就。古腾堡的活版印刷机发明后，利用该技术，经过约50多年的时间，在欧洲各地印刷了约2000万册以上的书籍。在1500年代初期的50多年里，仅德国就印刷了6千万册以上的书籍。这种印刷技术的普及不仅在当代欧洲的知性世界，也在普通大众社会也引起了巨大的反响。特别是圣经的大众化之后，不仅带动了宗教改革和对抗宗教改革等激进思想的发展，也成为了引领当代欧洲社会秩序新模式的原动力。相反，高丽利用直指印刷中发明的金属活字印刷技术，仅仅止步于对一本书的印刷，少则10本，多则才80本左右。这对于社会、思想上产生的某种影响力是微不足道的。金属活字印刷技术被视为具有高价值人类发明的最大原因之一是因为它是使前近代史旷古未有的知识和信息革命能够成为实现的基础技术。从这一点看，《直指》可以说是带有遗憾的文化遗产。遗憾是遗憾，但这并不意味着



世界最初技术性成就的价值本身就会消失。为了纪念这一成就，联合国教科文组织于2004年设立了直指奖，目的是为了纪念《直指》心体要节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入世界记忆遗产，开展了世界记忆遗产事业。该联合国教科文组织直指奖从2005年开始，每两年给为世界记忆遗产保护和利用做出贡献的个人及团体颁奖一次，奖金和费用全部由清州市承担。另外，得益于《直指》的价值，诞生《直指》的清州建立了联合国教科文组织下属机构——国际记忆遗产中心。联合国教科文组织国际记忆遗产中心于2017年确定在清州成立，2020年7月正式完成创立程序后，将于2023年在清州市建设，规模总面积2307平方米，地下1层、地上4层。

联合国教科文组织国际记忆遗产中心是联合国教科文组织下设的新机构，是联合国教科文组织记忆遗产领域最早的国际组织。该中心竣工后，将开发世界记忆遗产监测体制、培养文献遗产专家、构建记录数字平台、开发教育内容，收集、保存、管理各国文献等。据说将担当专门负责世界遗产记录物的事后管理以及相关政策研究的重要角色。此外，关于清州向大家介绍的地方还有国立现代美术馆清州馆和青南台以及上党山城。首先是国立现代美术馆清州馆。清州当然也设有国立清州博物馆、清州艺术殿堂等文化设施，但国立现代美术馆清州馆是其中具有独特特征的地方。就是游客们通过开放型收藏库可以参观收藏库内保存的各种美术品的设施。大韩民国的国立现代美术馆由果川馆、德寿宫馆、首尔馆、清州馆等4个美术馆组成。开放型收藏库系统也是其中只有清州馆拥有的结构。2018年开馆的国立现代美术馆清州馆原本计划建设为保存国立现代美术馆收藏品的国立美术品收藏保存中心。但当时清州市市长指出首都圈外的文化设施不足，并积极主张将国立现代美术馆附属设施建设成展示也一同进行的美术馆。这个意见被采纳之后，经过预备妥当性调查后预算增加，所以成为国立现代美术馆清州馆了。因此整体结构被规划为以收藏目的为主的空间，2000年代以后很多海外著名博物馆和美术馆尝试开放型收藏库形态，使国立现代美术馆清州馆形成了今天的面貌。因此内部设施有常设收藏展示场、恒温恒湿收藏库、特别收藏展示场及企划展示场等，全部收藏品中的部分收藏品轮流向参观者开放。拥有可以收藏作品1万1千多件的规模，收藏并展示了相当于目前国立现代美术馆收藏品约八千多件的一半，即四千多件；包括政府收藏的美术品和美术银行作品约2千多件在内的共计6千多件。

接下来我们来介绍青南台。青南台的意思是“南方的青瓦台”。众所周知，青瓦台是大韩民国总统办公及居住的设施。青南台是从1983年到2003年约20年间作为大韩民国总统的别墅运营的设施，因此而得名。青南台是全斗焕、卢泰愚、金泳三、金大中、卢武铉等5位总统在休假期间休息并构想国政的地方。卢武铉政府时期的2003年4月向民间开放后，这里成为了吸引众多游客的总统主题旅游胜地。位置上紧邻大清湖，风景优美的青南台拥有本馆、五角亭、高尔夫球场、养鱼场、草家亭和总统历史文化馆、总统广场、天空庭院、游泳池、音乐喷泉、总统路等众多设施。除了禁止拍照的本馆外，可以尽情观看。

最后要介绍的地方是上党山城。众所周知，山城是根据山势建成的。上党是清州的旧地名，据高丽史记载，这是百济第一次占领清州地区时起的名字。原来从百济时代开始由土城建造，在朝鲜时代肃宗的1716年改建为石城，一直延续至今。在韩国容易接触的大城市城郭在近代化和城市化过程中被拆除或消失的事例很多。因上党山城位于市郊山岭另一侧的山沟中，不仅保留了朝鲜时代城郭的形态，周边自然风景和移动道路的结构也被保留下来的代表性事例。因此，上党山城不仅保留了韩半岛的城堡建筑形态，还保留着风景，是具有较高历史价值的文化遗产。因为山城经过了漫长的岁月，所以像其他许多山城一样，随着时间的流逝，石头显露在外，简陋的基础部也外露很多，但是连这些都受到了很好的评价。堆砌的石墙保存得很好的地方也很多，是出游时非常适合游览的地方。登上上党山城，就能将清州市中心尽收眼底，还有步行路以及饭店、旅游设施等娱乐设施。山城呈圆形，环绕着小山谷，山城内侧有村庄，出售着各种土俗食品。

忠清北道和大田广域市一带被称为“中原地区”，曾是5~6世纪三国时代相互争逐竞胜的场所。因为这样的历史背景，这里是官房设施分布非常多的地区。另外，以中部内陆山城郡的名字被列入联合国教科文组

织世界遗产暂定目录，包含在内的山城如下：三年山城、上党山城、忠州山城、蔷薇山城、德州山城、温达山城还有弥勒山城。关于忠清北道的道厅所在地清州我们就介绍到此。下一次第三课时,我们将介绍一下镇川,来了解韩国的体育文化。

第三课时 | 秦川的故事和文化资源

第三课时我们了解的城市是镇川。镇川郡是忠清北道仅次于清州市有快速增长趋势的地区。这里比附近自治团体的开发和发展速度更快,人口增加率在郡级也是很大的。自古以来就有“生居镇川”的说法,可见这里是一个适合居住的地方。自然灾害造成的损失较少,而且紧靠着镇川平原的粮仓,丰收的情况很多,因此农耕时期一直有这样的名声。为了减小首都圈的集中化和过密化,韩国从2007年开始在政策上尝试的革新城市事业起到了牵引镇川人口增长的作用。革新都市事业将过去集中在首尔及首都圈地区的公共机关和政府出资的研究机关分散迁移到地方各地区。以那个地区为中心制定小的城市规划计划,将其培养成为地区发展的重点地区。该计划共将153个机关迁移到全国共112个地区,建设112个革新都市,其中镇川郡与旁边的阴城郡共同成功申办了忠北革新都市。取得了16个机关入驻,确定新设国立消防医院等成果。同时,在镇川郡和阴城郡共同申办的忠北革新城市事业的促使下,使镇川郡在人口增加方面获取了实际利益。由于镇川郡圈内新城市大规模建设的公共住宅,使镇川郡2019年人口增长率达到了3.66%,在全国市郡中排在第5位,非首都圈市郡中排在第1位。不仅如此,忠北新城市是全国革新城市中人口最年轻的城市,平均年龄为31.5岁,成为年轻人人口比率最高的城市。因此,在忠北新城市商圈可以看到儿童娱乐场、儿科医院、咖啡屋、补习班等商家。镇川郡的旅游资源有寺庙、生态公园、金庾信诞生地等莲谷溪谷,还有超过千年的石桥镇川农桥、历史主题公园和自然休养林、还有以钓鱼闻名的草坪水库等。

尽管如此,如果要现代韩国人选择最有名的镇川设施的话,也许会提到的是被称为镇川选手村的镇川国家代表综合训练院。镇川国家代表综合训练院通常被称为镇川选手村,是为训练韩国国家代表体育选手而设立的专门集训机构。镇川选手村是继位于首尔芦原区的泰陵选手村之后建成的第二个国家代表选手村。这个镇川选手村的建成与革新城市事业是完全无关的,泰陵选手村又是因何而进行的事业呢?为了故事的来龙去脉,在了解镇川选手村之前,我们先聊聊泰陵选手村的故事。暂时追溯到1964年吧。1964年是第18届东京奥运会举办的一年。当时,韩国为了通过与朝鲜的体制竞争确保在日侨胞成为韩国支持集团,向东京奥运会派遣了与当时国家情况相比更大规模的代表团。是由165名选手和59名管理人员组成的代表团。与之前1960年罗马奥运会共派出了36名选手和31名管理人员,下一届1968年墨西哥城奥运会则派出了55名选手和21名管理人员相比,可以说这是一次规模庞大的代表团。在东京奥运会上,韩国代表队创造了2枚银牌、1枚铜牌的历史上最多奖牌的纪录。虽然该成果是历届最好成绩,但与动员国力派遣史上最大规模的代表团相比,还是多少有些令人失望的。因此,关于当时朴正熙政权为什么会出现如此低迷的结果,经过政府主导的讨论,得出了需要综合体育训练设施的结论。这是效仿冷战时期苏联及东欧国家推进的国家主导的精英体育基础国立训练系统的结果。当时韩国政府将国立综合体育训练设施场所选定在朝鲜文定王后的陵园泰陵附近的地皮,并加快了该选手村的建设步伐,于1966年6月动工兴建了第一栋建筑。这样建设的泰陵选手村因1986年首尔亚运会和1988年第24届首尔奥运会的举办而得到了进一步的完善。此后直到2000年手球、羽毛球、田径室内训练馆五环馆建成为止,一直在不断扩张,成为了名副其实的韩国唯一的国立综合体育训练中心。

但是泰陵选手村在2009年迎来了很大的拐点。是因为2009年6月,包括紧邻泰陵选手村的泰陵和江陵在内,位于18个朝鲜王陵区域内的40个朝鲜王家陵被联合国教科文组织指定为世界遗产。当时联合国教科文组织以恢复原貌为前提,要求将陵园中看到的风景按照该陵园建成时的风景进行恢复。因此,泰陵选手村的建设因侵犯了泰陵和江陵朝鲜王陵区域,不得不全部搬迁。但事实上,迁移泰陵选手村这一话题并非是在2009年突然出现的。由于很多设施老化,不得不进行大规模改造,而且申请将朝鲜王陵指定为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的准备工作也是从很早以前就开始进行了。因为从2003年开始,已经制



定了代替泰陵选手村的选手村的计划。因此,在第二年即2004年,就从建立国家代表选手村的多个预备候选中选定忠清北道镇川郡。当时人口只有7万人的小城市镇川作为城市发展的核心动力事业之一,把生死存亡寄托在了申办国家代表选手村上。

对于中小城市来说,国家代表选手村是一个非常魅力的机构。比如泰陵,虽然地名来源于朝鲜王陵泰陵,但在以往的40多年岁月里通过各种媒体报道在韩国人之间都以国家代表村的形象出现的。泰陵这个词就像象征国家代表团的话一样,具有了很高的知名度。从20世纪60年代开始,一直是历史悠久的韩国体育中心,因此体育界人士认为这里既是他们梦想的目的地,也是理想的训练场,是他们一生的夙愿。泰陵国民认知度如此之高,不仅仅是因为每年、隔年举行的各种项目的世锦赛,至少因每四年举办一次的奥运会,也能在全体国民之间持续地得到加强和维持。如此一来,申办新的国家代表选手村不仅仅是因为能够享受众多国家代表以及支援这些项目的专家长期集体住宿带来的经济效益,在今后的漫长岁月里,韩国体育圣地的知名度也会一直展现给全国体育人士乃至全国国民。另外,从带来消费机会层面来看,对相关中小城市的品牌效应也会产生巨大的积极影响。镇川终于被选定为极具魅力的新国家代表选手村的建立基地。

镇川选手村建设第一阶段工程在朝鲜王陵即将被指定为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的2009年2月开工,2011年8月竣工。为了完美地代替泰陵选手村而开始的第二期工程于2013年12月开工,2017年9月竣工。因此,终于在2017年9月27日镇川选手村正式开业。建设和构建共投入5000亿韩元的镇川选手村占地面积为163万5891平方米,是泰陵选手村的5倍,设有游泳场、越野滑雪、飞碟射击场、室内射击场、综合运动场、篮球场、棒球场、垒球场、皮划艇、赛艇训练场、室内网球场、射箭训练场、冰上训练场、自行车飞碟场、选手会馆、体力训练场、选手集训设施、选手配套设施、投掷场地、橄榄球训练场、曲棍球训练场等,共有35个项目的选手可以进行训练。除了已经自行具备专业训练设施的足球等部分项目外,几乎所有的奥运会项目都可以在这里进行训练。对于一般的韩国人来说,可以说是从2018年平昌冬奥会开始正式名声大噪。从这里可以看出,韩国以支援难以自生稳定下来的冷门项目为名,并没有缩小选手村系统,而是仍然在运营。在泰陵选手村使用年限已尽的时候,又遇到了附近泰陵和江陵指定世界遗产的巨大外在因素,甚至提出其存废问题的情况下,重新投入巨额财政建设镇川选手村来看,可以预料韩国对体育的态度和观点在短期内不会发生太大变化,会一直延续下去。

这里出现了"精英体育"的表述,这其实是只在韩国使用的所谓"韩式英语"之一。从小招募有各项体育才能的精英,经过从小学到高等教育课程的全过程,让专业的体育指导者进行指导,接受集中、系统的体育教育这就是所谓的精英体育。在这个精英体育系统中,国家会向冷门项目的选手提供补助金,在某些情况下相关企业也会签订物品赞助或广告等赞助合同。简单来说,为了使没有职业联赛的项目也能够专注于自己的项目,就像职业联赛球队的青少年培养,或选手维护系统等支援体系,国家用税金支援的形态叫做精英体育。事实上,除了用语不同之外,全世界很多国家都在利用精英体育系统集中培养选手。随着镇川选手村的建立,镇川将在今后数十年间作为韩国体育的中心和核心,发挥实质性的、象征性的作用。很多体育界人士的汗水、眼泪、意志和努力将通过镇川取得成果。关于镇川的叙说到此为止。接下来第四课时,我们将了解忠州和堤川,谈论分散在各处的故事。

第四课时 | 忠州与堤川的故事和文化资源

这次第四课时,我们将回顾忠州和堤川,谈论分散在各处的故事。我们先去了解忠州吧?忠州位于忠清北道东北部,人口21万,是忠清北道第二大城市。忠州的忠就是来源于忠清道。这里既是远离大海的内陆山地,又因是市内将月岳山包括在内被山环绕的盆地地形,因此昼夜温差非常大。因此,地区农特产品忠州苹果的糖度非常高。因忠州位于韩半岛的中心地带,从古代时期开始就被认为是非常重要的战略要地。因此忠州地区尤其是以三国时代为中心,被当代最强盛的国家轮流占据的地区。三国时代以来到4世纪以前属于百济,但随着高句丽广开土大王扩张领土,百济被赶出,占据了忠州地区一带,高句丽将忠州一带称为国原城。

之后的551年新罗振兴王扩张国土,占领了这里。此后,新罗于557年将忠州一带指定为相当于现在广域市般的小京,558年将居住在首都徐罗伐附近的富裕百姓迁至此作为国原,培育了这座城市。新罗三国征伐以前是二小京之一的国原京,新罗三国征伐后更名为五小京之一的中原京,这时中元的意思代表国土的中央。位于忠州的国宝第6号中央塔,正式名称是忠州塔坪里七层石塔是这个时候建造的。这也说明当时这个地方是国土的中央。在忠州遗存的文化遗产中,与三国时代相关的遗产是比较有名的。

下面将对最具代表性的就是蔷薇山城和忠州高句丽碑、弹琴台进行简单的介绍。首先,蔷薇山城是三国时代的山城。因为这个地区本来就是角逐地,所以是对明确的筑造主体有很多见解的城郭。过去有人认为是高句丽城郭,但开采结果显示百济最先建造,之后高句丽暂时占领,后来新罗最终获得了该城。蔷薇山城是被暂定于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名录之中的构成内陆山城群中的一座。忠州高句丽碑是韩国现存唯一的高句丽石碑。从391年至412年在位的广开土大王主要开拓了北方地区;其子长寿王在位于412年至491年,推进南进政策,高句丽迎来了鼎盛时期。忠州高句丽碑就是长寿王掌握中原地区时建立的纪念碑。该石碑采用了高203厘米,正面宽55厘米,左侧宽33厘米,底端为石柱形状的自然石,在四个面都刻上了文字。其形态与位于满洲的广开土大王碑相似。忠州高句丽碑上平均每行23字,共刻有528字。据说由于磨损严重很难诠释,大致内容就是标记了高句丽的领土界限。内容是宣布高句丽攻陷百济首都慰礼城,掌握到了韩半岛的中部地区,其领土扩张至忠州地区。忠州高句丽碑是体现4~5世纪当时高句丽、新罗、百济三国关系的珍贵资料,被指定为大韩民国第205号国宝。

忠州弹琴台是与三国时期伽倻的于勒和壬辰倭乱当时朝鲜申砬将军有关的遗址。首先伽倻是公元42年至562年在韩半岛南部地区存在的大伽倻、金官伽倻、阿罗伽倻、小伽倻等古代国家的联合体。其中在大伽倻出生的于勒是音乐家。他是最早发明了拥有12行弦伽倻琴乐器的人物。于勒与王山岳、朴堧一起被称为韩国史上的三大恶性人物。据推测,音乐家于勒整理了伽倻各所属国地方特色的固有音乐,进行编曲和作曲的。在551年左右新罗扩张领土的时期,于勒和弟子一起从伽倻转移到新罗。于勒在新罗真兴王前演奏后,得到了真兴王的赞誉,被赐予在现在的忠州国原京居住。安身于忠州地区的于勒,安居在绕着奇岩峭壁的南汉江和郁郁葱葱的松林等风景非常优美的野山上,在当时新罗的青年面前演奏了伽倻琴。听说听到这个声音的人们被伽倻琴的音色魅力深深吸引,聚到一起后很快形成了村庄。所以于勒演奏伽倻琴的这个地区代表演奏伽倻琴的地方被称为弹琴台,延传至今。另外,该弹琴台也是1592年壬辰倭乱当时武装新立率领8千名士兵迎战外将加藤清正和神石由纪那贺军队而展开弹琴台战斗的战争遗址。关于壬辰倭乱,我们将在以后的第6周和第8周分别了解全罗南道和庆尚南道时进行详细的讲述。首先,可以理解为是统一战国时代的日本丰臣秀吉为征伐朝鲜和明朝而侵略韩半岛时而发起的战争。弹琴台北侧南汉江山坡的十二台悬崖是申立在壬辰倭乱当时12次上下滑,将弓弦浸湿后发射,鼓励士兵的地方。虽然战斗得如此惨烈,但因战局不利最终战败,申立跳河自杀。

接下来我们一起去了解堤川。堤川虽然属于忠清北道内,但忠北的本性较弱,是整体上具有江原道本性



的城市。是因为从历史上开始堤川的人际交流与江原南部就一直非常活跃。所以这个地区的语言和文化比起忠清道，与岭东东南部地区更加相似。现代以后，堤川在江原道逐渐成长为连接宁越、旌善、太白的交通枢纽城市，作为水泥产地以及水泥产业结构为江原南部地区提供了相当数量的水泥。在讨论忠清道时堤川还是具有相当重要象征性的城市。其理由是，正如第一课时中提到的那样，忠清道的旧称是湖西，即湖水的西侧，它是将义林池拥抱在内的城市。这样的象征性在城市名称中也很容易出现。堤川的堤这个字就是堤堰、堤坝的意思。最终，城市名称堤川可以说是义林池之都的意思。

义林池与金堤碧骨堤、密阳守山堤都是韩国历史最悠久的水库之一。与其他两个水库不同，它虽然历史悠久，但至今仍被用于灌溉农业。有观点认为，义林池建于三韩时代，即原三国时代，也有观点认为建于更后来的三国时代。但是不管怎么说，义林池是在约2千年前出现至今仍以湖泊形态存在的，是一个有着悠久历史的湖泊和水库。由于历史悠久，义林池最初诞生时，究竟是自然湖水还是人工水库，至今尚未查明。但重要的是，自韩半岛农业开始以来，义林池一直为一带提供了水资源，起到了的核心灌溉设施的作用。在数千年的农业基础历史中，在担负这一带居民生命水作用的义林池，真正重要的是堤防部分，而不是积水的湖泊。义林池的堤坝经过时代变迁也在逐渐升高。在筑造堤坝时，采用了位于首尔的百济古代王城梦村土城、风纳土城等的浮土工艺。这里的浮土工艺是指在脆弱的地基上，以芦苇等草本类、树枝、杉树皮等为基础进行补充铺设，使堤坝或城墙变硬的工艺。在没有像现在这样的大型土木建设装备的时期，建造堤坝是非常困难的事情。尽管如此，义林池规模的堤坝得以建成，意味着当时堤川地区有大权者或义林池本身已经超越了地区，是国家非常重要的设施。

今天义林池的一侧是人工瀑布，距离人工瀑布稍微南一点的地方还有高10米以上的龙锥瀑布，是自然瀑布。但是，龙锥瀑布是水库水超过需要时才会流出水，并不是经常流水，而是只有在下雨或用人工泵提水时才能看到的瀑布。龙锥瀑布上设有玻璃瞭望台。经过铁柱上设置的传感器，不透明玻璃会变成透明玻璃，俯瞰瀑布。可以一边走一边看着脚下洒下的水，就像在瀑布上散步一样，能够同时带来惊险和瀑布凉爽感的瞭望台。义林池冬季冰鱼较为闻名，冰厚度达8厘米以上，人们湖面上乘坐雪橇或打孔钓鱼。另外，由于义林池本身是堤川的象征和地标，所以设立了每年都会举办的堤川国际音乐电影节的影院。义林池在堤川市推荐的堤川10景中堂堂正正的占据着第一景的位置。与韩半岛历史一起延续下来经过漫长岁月成为人们生命之水的义林池，至今已成为附近居民幼年时期常去的郊游场所。这里是一片饱含着家人回忆的游乐园，又是一条温馨的散步路和约会路线，深受大家的喜爱。此外，义林地正北侧于2019年建立了义林池历史博物馆，如实反映了义林池的历史、文化、生态价值，成为人们日常生活的一部分。了解忠州和堤川的课时有趣吗？我们接下来进行第五课时一起来了解一下报恩。我们大家去看一下那里还有哪些话题吧。

第五课时 | 报恩的故事和文化资源

第五课时让我们了解一下报恩。报恩郡位于忠清南道中南部。人口数约3万2千人，是一个小城市。直到朝鲜时代报恩还是连接繁盛都市尚州和清州的交通要塞，这里曾经也是人来人往，因1905年开通的京釜线远离报恩，来往庆尚道地区和忠清道地区的主要交通路线变为秋风岭，导致城市规模缩小。现在人口也呈持续减少的趋势，是消失危险度较高的基础自治团体。从生活圈来看，虽然也受清州和大田这两个大城市的影响，但大体上除了部分西部地区之外，更接近清州生活圈。报恩有我们一定要参观的地方。就是法住寺和三年山城。

首先，法住寺是建立在俗离山国立公园内的佛教寺庙。法住寺是新罗真兴王时期即533年，在唐朝学习归来的义信大师所创建的寺庙。因他回国时将从西域传来的佛经带了回来，故此寺命名为法主即佛法之家。776年真表律师寺大规模重修，经过高丽时代才拥有了现在的规模，但因1597年日本的丁酉再乱，导致寺庙被全部烧毁。此后1624年泗溟大师及碧岩大师主持重建并扩建后保留至今。作为信仰遗迹得到了学术价值的认可，2009年被指定为大韩民国史迹第503号。2018年与梁山的通度寺、荣州的浮石寺、安东的风顶寺、公州的马谷寺、顺天的仙岩寺、海南的大兴寺一起，以山寺、韩国的山地胜原的名字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入世界遗产名录。法住寺是近代以前建造的木塔中唯一保存下来的八相殿，因此而闻名。法住寺是保留着高33米巨大金铜弥勒佛像和各种文化遗产的重要寺庙。保留着代表性文化遗产八相殿、双狮子石灯、石莲池等国宝3件和大雄殿、圆通宝殿等的宝物13件、天然纪念物正二品松，此外还有24件道指定文化遗产等。大韩民国国宝第55号八相殿是在丁酉再乱当时被烧毁后于1624年重建的木塔。高 22.7 米，平面 共5层，呈正方形形态。佛塔的建造方式可划分为木制木塔、砖制砖塔和用石头雕刻的石塔。木塔曾迎来全盛期的时期是三国时代和高丽时代。但是八相殿是在这两个时代都结束的朝鲜中期重建的。因此，与典型的高丽木塔不同，它的外形和结构相当特殊。

一般的木塔在塔中间有一根叫做心柱的巨柱，支撑着塔顶上的金属装饰物。以心柱中心，周围各层分段的结构物与心柱结合，各层堆积的柱子分散负荷，形成支撑塔的结构。但是法住寺八相殿以巨大的中心柱为中心，从一层到最上层的长长的柱子支撑着负荷，呈现出连续的结构。大韩民国国宝5号法住寺双狮子石灯是统一新罗时代建造的双狮子石灯。与其他石灯一样上部和下端都是八角形，但柱子雕刻了一对雌雄狮子。两头狮子胸前对着，前脚向上抬起，以这样的形式站立，从侧面看构成了稳定的X字形姿势。双狮子起到柱子作用的石灯是在统一新罗时期制作而成的，虽然除了法住寺之外还有几座石灯，其中法住寺石灯的均衡美非常突出，其细腻的雕刻得到了更好的保存。狮子高举象征佛陀真理的石灯，表现了守护佛法的意义。大韩民国第64号法住寺石莲池是在三国征伐以后于新罗时代720年建成的莲花形状的花岗石石莲池。石莲池是指用石头制作的小莲花池，是新罗时代当时盛水放莲花的造景石。高1.95米，围长6.65米，基坛部分由八角形的石头组成，中间部分是雕刻成云状的石头，上面有巨大的石莲池，呈碗状。保存状态非常好，细节的雕刻手法优秀，造型也被评价十分干练。法住寺石莲池堪称韩国石莲池的代表作，是展现新罗时代繁荣的石雕工艺术的重要文物，其价值得到了认可。

大韩民国天然纪念物第103号报恩俗离正二品松是位于法住寺入口的巨大松树。高16.5米，中部树干围长5.3米，据推测树龄在600年至700年之间。这棵树有一段朝鲜王世祖的故事，被韩国大众认为是非常著名的天然纪念物。关于世祖的轶事如下。据说，世祖在位第10年的1464年，在俗离山法住寺行车时，从这棵树下经过。由于松树非常大，而且树枝像撑伞一样向下沉沉地垂下，所以担心皇帝乘坐的轿子会刮到松树下面的树枝，在周围观察的大臣们说到“轿子刮到树枝”的那一瞬间，松树自己举起树枝，让御驾安然度过。世祖因被仅是一棵植物的松树认自己是君王并躲过的事而感动不已，世祖给松树赐予了相当于今天长官级的正二品官职，此后正二品松在朝鲜王朝一直受到王室的保护。在朝鲜时代一直是非

常有名的故事，到了世祖被否定的现代，这个故事也受到很多批判。世祖是创造韩国文字的世宗大王的多个儿子之一，是继承世宗登上王位的文宗的弟弟。但文宗登上王位不久过世，年幼的儿子端宗登上王位后，世祖将端宗在政治上孤立并加以威胁，最终篡夺王位。正因为如此，今天正二品松的故事才被提出，世祖可能是为了使自己的政变正当化而制造和传播的与自己有关的积极传说。因此，正二品松的长期名声也在一定程度上黯然失色，作为历史故事资料和旅游资料的价值以及作为交叉验证的价值多少有些降格。因为中国的泰山吴大夫颂和黄山迎客颂也有类似的故事。尽管如此，正二品松的生物学价值还是比较高的。因为在东亚被称为松树的树木是建筑材料、柴火、其他松脂等副产品等用途较多的树木，所以几乎没有古树。从这个角度来看，数百多年来一直受到王室和政府保护的松树作为朝鲜半岛的高中世纪生物遗传资源的价值是非常高的。

甚至这棵树原本以形态非常美丽而闻名。中心树干非常笔直，枝条呈斗笠或撑伞的蘑菇状的独特松树，拥有美丽而雄伟的姿态。只是正二品松在1993年因强风导致西侧断裂，现在失去了以前雄伟的姿态。原本就很有名的松树，再加上生物学价值很高，外形也很美丽，所以以韩国国立山林科学院为中心，从2001年开始一直在为保存正二品松的血统而努力。松树是一棵树上雌花和雄花分开开的树。为了制造纯正血统，可以将自己的花粉补给雌花，但这种情况下，会出现不长种子或即使长出来也不能长好树的"子女弱势"现象。因此，国立山林科学院在从全国各地选拔的母树候选中选出了江原道三陟的5个松树，并于2001年与正二品松举行了婚礼。为了不让它与其他花粉受粉，在母树的雌花上盖上纸袋，以用正二品松的花粉受粉的方式，进行了保存正二品松血统的事业。在此过程后，终于获得了第一个儿子长子木，经过DNA调查，2008年10月最终确认长子木是正二品松的亲生子女。国立山林科学院还发表了今后接受转让申请，在独立纪念馆或国会议事堂等有意义的地方种植10棵左右的计划。

接下来，我们将了解三年山城。三年山城是新罗为用作三国统一的前哨基地而倾注心血建造的要塞。据说，筑城时使用了花岗岩块约1千万块。据《三国史记》记载，经过3年的筑城，于470年竣工，故名三年山城。建造三年山城的5世纪韩半岛是百济和新罗联合阻止高句丽南进的时代，因此需要坚固的城堡，所以耗费巨大的劳动力建造了三年山城。这城围长约1.8公里，城墙用扁平地石头，一层横砌，一层竖砌，十分坚固。城墙的高度因地形不同而有所不同，但大体上在10米以上，属于非常高的。朝鲜时代的山城呈环绕山顶的形态，大体上比较低，相比之下，这三年山城可以说是要塞。城墙如此高大，荷重也非常巨大，因此城墙拐角的荷重较大的部分为了巩固基础，用石头砌成了四重阶梯式。这座三年山城因是坚不可摧的千年要塞而声名远扬。仅从历史书上记录的官方记录来看，149胜1负的绝对防御能力而令人自豪。不仅是百济，就连打败隋朝和唐朝的高句丽也未能攻克这座城。后来就连高丽太祖王建也为了抢夺当时后百济占领的这座城，在位第11年的928年展开了攻城战，但最终失败告终。惟一的一败是822年金宪昌叛乱时金宪昌在三年山城败给官军，因而沦陷。因为历史书上留下的记录只有一条，所以别说是如何沦陷，连战斗过程都没有公开。作为在韩国众多山城中屈指可数的坚不可摧的要塞，这很有可能是因内部人士的背叛而沦陷的，但这毕竟只是推测而已。

正如这样，三年山城被评价为是在5世纪后期代表新罗的筑城技术的韩国历史上利用石头砌成的代表性山城。这三年山城也是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临时登记目录中记载的中部内陆山城群中的一座。各位，今天我们共同了解了位于忠清北道的清州、镇川、忠州和堤川以及报恩，也探讨了关于这些地区的各种故事。下一节课我们将了解大田和忠清南道，一起了解该地区错综复杂的过去和现在的各种故事。大家今天也辛苦了。我们下次再见。

| Vietnamese Script

Phần thứ 1 | mục tiêu học tập

Vâng. Xin chào các bạn. Tôi là Kim Sae Ik đến từ Đại học Kyunghee, sẽ trò chuyện với các bạn về câu chuyện của người Hàn Quốc và văn hóa Hàn Quốc từ góc độ nội dung văn hóa. Lần này, trong bài giảng thứ 3, chúng ta sẽ tìm hiểu về các câu chuyện rải rác khắp tỉnh Chungcheongbuk và tài nguyên văn hóa. Ngày xưa, ba tỉnh nằm ở phía nam bán đảo Triều Tiên là Chungcheong, Jeonlla và Gyeongsang được gộp lại với nhau và người ta dùng cụm từ Samnam hay khu vực Samnam để gọi. Khu vực Samnam này gần như trùng với phạm vi khu vực phía nam truyền thống của bán đảo Triều Tiên và chiếm khoảng 32% diện tích của toàn bán đảo. Khi bán đảo Triều Tiên chia thành miền Bắc, miền Trung, miền Nam, cụm từ 'Samnam' đã được đẩy mạnh thành khái niệm tương ứng với khu vực phía Nam. Tuy nhiên, vào thời hiện đại, khi bán đảo Triều Tiên bị chia cắt thành hai miền nam bắc, thuật ngữ 'Samnam' không được sử dụng thường xuyên. Đó là vì sau khi phân chia hai miền Nam - Bắc, Samnam chiếm khoảng hơn 70% diện tích lãnh thổ nên tỷ lệ đã tăng lên quá nhiều. Do đó, xu hướng gọi tên riêng cho từng tỉnh trở nên chiếm ưu thế hơn và tùy theo trường hợp phản ánh hiện tượng tập trung hóa vào khu vực thủ đô quá mức dẫn đến việc xuất hiện cụm từ 'khu vực thủ đô' để chia cả nước thành 'khu vực thủ đô' và 'không thuộc khu vực thủ đô'. Để các bạn tham khảo thêm, khu vực Samnam cụ thể là Chungcheong, Jeonlla và Gyeongsang là vùng đất màu mỡ để trồng trọt từ thời cổ đại vì khí hậu ấm áp và có nhiều đồng bằng rộng lớn. Đó là lý do tại sao thậm chí đã có câu tục ngữ nói rằng: 'Nếu Samnam được mùa thì thiên hạ không chết đói'. Trong số đó, Chungcheong mà chúng ta sẽ tìm hiểu trong tuần này và tuần tới là khu vực nam trung bộ của Hàn Quốc.

Trong tuần đầu tiên, chúng ta đã tìm hiểu sơ qua về các cụm từ như Honam, Yeongnam là biệt danh cho từng vùng của Hàn Quốc. Ngoài các cụm từ như Honam và Yeongnam vẫn được sử dụng rộng rãi cho đến ngày nay, có một cách diễn đạt ngày nay không được sử dụng thường xuyên là Hoseo, là từ chỉ khu vực Chungcheong này. Ở tuần đầu tiên, tôi đã trình bày tên Honam có ý nghĩa là khu vực phụ phía nam của hồ nước, và hồ nước được lấy làm chuẩn lúc này được xem là Byeokgoljae của Gimjae. Hoseo cũng có nghĩa là phía tây của hồ. Điều thú vị là hồ nước được lấy làm chuẩn của Hoseo được nhiều người kể đến là Uirimji của Jaejeon. Byeokgoljae và Uirimji là hai hồ chứa nước nhân tạo phục vụ cho nông nghiệp và đều có một điểm chung là: đây là những hồ chứa nước có quy mô lớn đã được người dân ở các vùng khác biết đến trong thời kì tiền cận đại. Từ bây giờ, chúng ta sẽ tìm hiểu từng địa danh một qua các tiết học, tuy nhiên, các tỉnh Chungcheong, Jeonlla, Gyeongsang này được chia thành 2 tỉnh phía nam và tỉnh phía bắc theo mặt hành chính. Như các bạn thấy trên bản đồ



này, không giống như Jeonlla và Gyeongsang được chia thành phía nam và phía bắc trên thực tế, có thể nhận thấy được phía Nam và phía Bắc của tỉnh Chungcheong nằm ở cùng vĩ độ với nhau nên thật gượng ép khi sử dụng cụm từ “Bắc và Nam”. Việc xác định tên của các tỉnh này là Chungcheongbuk (tỉnh Bắc Chungcheong - gọi tắt là Chungbuk và tỉnh Nam Chungcheong - gọi tắt là Chungnam) mặc dù nhìn thế nào cũng thấy là tỉnh được chia theo hướng đông - tây chứ không phải nam - bắc thực ra là để có tính thống nhất với các tỉnh khác. Chungcheong ngay từ đầu vốn là một khu vực trải dài từ đông sang tây nên được chia thành đông tây.

Vào năm 1896 thời Đại Hàn Đế quốc khi việc cải cách đơn vị hành chính chia toàn bộ bán đảo Triều Tiên thành 13 tỉnh bằng cách tách các tỉnh thành 2 tỉnh phía nam và phía bắc diễn ra, tên gọi Chungbuk và Chungnam được quyết định dựa theo mốc là vị trí của thành phố Chungju và ấp Ganggyeong - các thành phố tiêu biểu của tỉnh Chungcheong. Lưu ý thêm, theo truyền thống, tại Joseon này, đất nước được chia thành 8 tỉnh: Gyeonggi, Chungcheong, Jeolla, Gyeongsang, Gangwon, Pyeongan, Hwanghae, và Hamgyeong để vận hành các đơn vị hành chính. Đến năm 1896, trong số 8 tỉnh lúc bấy giờ, các tỉnh còn lại ngoại trừ Gyeonggi, Gangwon và Hwanghae đều được chia thành 2 tỉnh phía bắc và phía nam, tạo thành tổng số 13 tỉnh. Và sau sự phân chia của bán đảo Triều Tiên thành hai miền Nam Bắc, đảo Jeju, vốn là một phần của Jeolla, được chỉ định là một tỉnh độc lập, tỉnh Hwanghae ở Triều Tiên được phân chia nam bắc và tạo nên hai tỉnh mới là Jagang và Ryanggang, hình thành thể chế của ngày nay. Như vậy, tính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tại, có 8 tỉnh ở Hàn Quốc và 8 tỉnh ở Triều Tiên. Vì vậy, ít nhất ở Hàn Quốc, từ ‘Paldo’ (8 tỉnh) đã từng được sử dụng từ triều đại Joseon để chỉ nghĩa ‘toàn quốc’ vẫn thường được sử dụng cho đến bây giờ. Đó là bởi vì đây là một cách diễn đạt không chỉ đề cập đến toàn bộ bán đảo Triều Tiên mà còn đề cập đến toàn bộ Đại Hàn Dân Quốc

Tuy nhiên, trên thực tế, tên của Chungcheong đã thay đổi gần 20 lần chỉ trong triều đại Joseon. Hầu như tất cả sự kết hợp có thể kể ra như Chunggong, Cheonggong, Cheonghong, Chunghong và Gongcheong với trung tâm là Chungju, Cheongju, Gongju và Hongju đều đã lần lượt được đổi và rồi tên đầu tiên, Chungcheong đã trở thành tên cuối cùng. Nếu xét rằng tên của khu hành chính cấp tỉnh của Joseon được tạo ra bằng cách kết hợp tên của hai thành phố đại diện trong khu vực, sự thay đổi tên thường xuyên của tỉnh Chungcheong có thể được diễn giải với ý nghĩa là đã không có nơi nào là trung tâm cốt lõi không thể thay thế trong khu vực Chungcheong ngày nay. Chungcheong có vị trí tiếp giáp với khu vực thủ đô, và nhờ đó, đặc biệt là vùng Cheonan và Asan của Chungnam tiếp giáp trực tiếp với khu vực thủ đô tạo thành một khu vực đô thị độc lập, và sự giao lưu trong vùng sinh hoạt hàng ngày đang diễn ra sôi nổi về phía Suwon, Incheon và Seoul. Daejeon và Cheongju cũng là nơi giao lưu với khu vực thủ đô diễn ra mạnh mẽ. Đổi lại, giao lưu trao đổi với khu vực Yeongnam và khu vực Honam là khá ít. Vì lý do này, Chungcheong có ít tính đặc sắc vùng miền hơn các khu vực khác. Đặc biệt, phần lớn kết cấu dân số của Chungcheong là sự pha trộn của những người xuất thân từ khu vực thủ đô, Yeongnam, Honam và Gangwon với những người dân bản địa của Chungcheong. Vì vậy, trái với Gangwon, Jeolla,

Gyeongsang, Jeju, và thậm chí cả Seoul và Gyeonggi - mỗi nơi đều có một màu sắc khu vực riêng biệt, thì chỉ có Chungcheong là nơi duy nhất không có bất kỳ tính đặc sắc vùng miền riêng nào.

Khu vực sinh hoạt lớn của Chungcheong được phân loại thành khu vực Daejeon, khu vực Naepo-Cheonan và khu vực Chungbuk. Tuy nhiên, khu vực nội địa tỉnh Chungcheong cho thấy mức độ sự đô thị hóa diễn ra mạnh mẽ với trung tâm là các tuyến đường sắt Seoul-Busan và đường cao tốc Seoul-Busan. Do đó, ba thành phố lớn của Chungcheong là Daejeon, Cheongju và Cheonan với trung tâm là vùng Daejeon và vùng Naepo-Cheonan có khoảng 3 triệu người, một nửa tổng dân số của Chungcheong đang sinh sống ở đây. Vì vậy, tỉnh Chungcheongbuk mà chúng ta sẽ tìm hiểu ngày hôm nay với sự phát triển diễn ra tập trung vào khu vực Cheongju đã tạo nên hình ảnh có sự chênh lệch rất lớn giữa Cheongju với các khu vực khác. Trong số 1,6 triệu dân ở Chungcheongbuk, dân số của Cheongju là 850. 000 người, chiếm hơn một nửa dân số. Hôm nay, chúng ta sẽ cùng tìm hiểu về Cheongju, Jincheon, Chungju và Jecheon, và Boeun ở tỉnh Chungcheongbuk, và đắm mình trong những câu chuyện khác nhau liên quan đến những vùng này. Mục tiêu học tập của chúng ta ngày hôm nay là tìm hiểu nguồn gốc và bối cảnh của những câu chuyện được gom góp lại ở Chungcheongbuk, đồng thời hiểu được những câu chuyện của từng khu vực tồn tại và có ảnh hưởng lâu dài cho đến ngày nay. Và tìm hiểu về suy nghĩ và cuộc sống của người dân sống trong khu vực này và để trực tiếp hình dung địa hình văn hóa của Chungcheongbuk.

Để thực hiện được những điều này, chúng ta sẽ có một số câu hỏi như sau: Đầu tiên, các thành phố lớn của tỉnh Chungcheong và bối cảnh xã hội nhân văn xung quanh đó đã thay đổi như thế nào? Thứ hai, quá trình lịch sử của mỗi thành phố ở Chungcheongbuk ra sao và vị thế, vai trò của tỉnh đó ngày nay như thế nào? Thứ ba, các điểm mốc của khu vực ảnh hưởng đến bản sắc và hình ảnh của thành phố như thế nào? Với câu hỏi này, chúng ta hãy đến với địa điểm du lịch hôm nay, Chungcheongbuk. Hãy bắt đầu xuất phát nhé!

Phần thứ 2 | Câu chuyện và tài nguyên văn hóa của Cheongju.

Trong buổi học thứ hai này, chúng ta sẽ cùng đến thăm Cheongju.

Cheongju là thủ phủ cũng như thành phố lớn nhất của Chungcheongbuk cso vị trí ở vùng tây trung bộ Chungcheongbuk. Cheongju là thành phố lớn thứ hai ở vùng Chungcheong sau Daejeon, là trung tâm chính trị, kinh tế, xã hội và văn hóa của Chungcheongbuk. Như tôi đã nói nhiều lần, từ 'Cheong' trong 'Chungcheong' là từ xuất phát chính từ Cheongju. Trong phần 1 của bài học, tôi đã lướt qua một chút việc tỉnh Chungcheongbuk tuy nằm ở vùng trung tâm của lãnh thổ Đại Hàn Dân Quốc nhưng lại phát triển xung quanh tuyến tàu hỏa và đường cao tốc Seoul-Busan. Vì vậy, cho đến khi đường cao tốc Jungang được khai thông sau những năm 1990 hoặc trước khi đường cao tốc Jungbu Naeryuk được xây dựng, đường cao tốc Gyeongbu (Seoul-Busan) và đường cao tốc Jungbu chính là cơ sở hạ tầng phía Gyeongbu duy nhất của tỉnh.

Do đó, đầu tư phát triển ở tỉnh Chungcheongbuk tập trung vào thành phố Cheongju, và thậm chí hiện tại, hầu hết cơ sở hạ tầng ở Chungcheongbuk đều tập trung ở Cheongju.

Vì lý do này, quy mô kinh tế hiện tại của Cheongju đã trở thành đại đô thị ngang cấp trực thuộc trung ương. Tính đến năm 2018, tổng sản lượng trong khu vực của thành phố Cheongju đã vượt quá 34 nghìn tỷ won, đạt quy mô tương đương với Thành phố Gwangju, khoảng 37 nghìn tỷ won và tự hào có mức tương đương với thành phố đại đô thị Daejeon lân cận với khoảng 39 nghìn tỷ won. Và Cheongju ngày nay giữ vị trí là trọng tâm giao thông với đường cao tốc Gyeongbu, đường cao tốc Jungbu, ga Osong nơi tuyến KTX tách ra thành 2 tuyến Gyeongbu và Honam, Sân bay Quốc tế Cheongju - sân bay quốc tế duy nhất ở khu vực tỉnh Chungcheong. Đặc biệt, tuy chúng ta sẽ tìm hiểu thành phố Sejong trong tuần tới, nhưng bởi vì ga KTX Osong đảm nhiệm vai trò ga đường sắt cửa ngõ của thành phố tự trị đặc biệt Sejong là trung tâm hành chính đô thị phức hợp, dự án phát triển khu vực ga và Khu liên hợp Khoa học Đời sống Osong (Osong Biovalley) kết nối với ga đang được xây dựng. Và tại Cheongju, Cheongju Craft Biennale (Triển lãm nghề thủ công) đã được tổ chức từ năm 2011 và bao gồm tất cả các lĩnh vực thủ công như gốm sứ, sơn mài gỗ, dệt may và kim loại. . .

Một trong những từ được tìm kiếm phổ biến nhất ở Cheongju là cái tên Jikji. Tiêu biểu là trường tiểu học Jikji, đại lộ Jikji là con đường chính ở thành phố Cheongju. Ở đây, Jikji không phải là địa danh, mà là tên gọi tắt của Jikji Simcheyeojol (Trực chỉ tâm thể yếu tiết) - phiên bản in bằng kim loại đầu tiên trên thế giới Jikji vẫn còn cho đến ngày nay là tập thứ hai trong số hai tập của một cuốn sách được xuất bản vào năm 1377 sau khi bắt đầu được chế tác tại Heungdeoksa, một ngôi đền ở Cheongju, vào năm 1372, trong triều đại Goryeo. Tập sách này tính đến thời điểm xuất bản, là tập sách được phát hành lâu đời hơn khoảng 78 năm so với cuốn Kinh thánh in kim loại do Johannes Gutenberg xuất bản. Theo ghi chép, cũng có những bản in bằng kim loại vào năm 1234 trước Jikji nhưng hiện nay đã bị thất lạc. Jikji là bản in kim loại lâu đời



nhất còn tồn tại cho đến ngày nay của nhân loại.

Bản gốc Jikji hiện đang nằm trong bộ sưu tập của Thư viện Quốc gia Pháp. Victor Colin de Plancy, người từng là Công sứ Pháp tại Hàn Quốc trong thời Đại Hàn Đế quốc, cũng là một nhà sưu tập đồ cổ. Người ta nói rằng Plancy đã mua Jikji trên đường phố như một sở thích và gửi nó đến Thư viện Quốc gia Pháp qua nhiều giai đoạn. Tuy nhiên, người ta nói rằng không ai biết giá trị thực sự của Jikji vào thời điểm đó và sau đó cho đến những năm 1960. Và rồi TS. Park Byeong-sen, một thủ thư người Hàn Quốc làm tại Thư viện Quốc gia Pháp trong 13 năm kể từ năm 1967, một ngày tình cờ vào thời điểm Byeonginyangyo (Chuyến thám hiểm của người Pháp đến Hàn Quốc) năm 1866 tại Thư viện Quốc gia Pháp này đã phát hiện bản Jikji này cùng với bản Joseon wangsil uigwe (Triều Tiên Hoàng thất Nghi quỹ) - các nghi lễ cung đình triều đại Joseon của Thư viện hoàng thất, nơi bị quân Pháp giành mất. Tiến sĩ Park Byeong-sun, nhận ra rằng đây là một tài liệu bất thường, ông đã tự mình tiến hành nghiên cứu và phát hiện ra rằng Jikji này là bản in bằng chữ kim loại lâu đời nhất trên thế giới. Việc là bản in kim loại đầu tiên trên thế giới có ý nghĩa to lớn vì đây là bản in đầu tiên sử dụng kỹ thuật in nổi được áp dụng cho đến ngày nay. Vì vậy, Jikji đã được UNESCO công nhận là Di sản Tư liệu của thế giới vào năm 2001. Nó được công nhận là bản in kim loại có giá trị lâu đời nhất còn tồn tại. Tuy nhiên, nếu nói một cách thành thật, thực sự hơi khó để nói rằng đây là bản in lâu đời nhất trên thế giới nhưng không phải là bản in tốt nhất trên thế giới.

Jikji theo nghĩa đen là bản in kim loại lâu đời nhất, nhưng nếu xét về sức ảnh hưởng và sự lan tỏa của nó đối với kỹ thuật in của hậu thế và toàn bộ xã hội thì có thể nói rằng đó có một giới hạn mà không thể coi là vượt quá thành quả của kỹ thuật in nổi Gutenberg. Như trường hợp máy in của Gutenberg, sau máy in này được phát minh, hơn 20 triệu cuốn sách đã được in trên khắp châu Âu trong vòng 50 năm tới bằng công nghệ này. Người ta tin rằng hơn 60 triệu cuốn sách đã được in chỉ riêng ở Đức trong năm mươi năm đầu của những năm 1500.

Sự phổ biến của công nghệ in ấn như vậy có ảnh hưởng to lớn không chỉ trong giới trí thức châu Âu vào thời điểm đó, mà còn đối với cộng đồng xã hội nói chung. Đặc biệt, việc phổ biến Kinh thánh đã dẫn đến sự phát triển tư tưởng cấp tiến như phong trào cải cách tôn giáo và phong trào cải cách phản tôn giáo, và trở thành động lực dẫn đến một mô hình mới trong trật tự xã hội châu Âu thời bấy giờ. Mặt khác, ở Goryeo, sử dụng công nghệ in trên vật liệu kim loại được phát minh trong việc in Jikji này, có ít nhất 10 bản và nhiều nhất 80 bản cho mỗi cuốn sách được in.

Về mặt tác động mang tính xã hội và tư tưởng, nó chỉ ở một mức độ rất nhỏ về số lượng. Một trong những lý do lớn nhất khiến công nghệ in kim loại được coi là phát minh có giá trị cao của nhân loại vì đó là công nghệ cơ bản có thể tạo ra cuộc cách mạng thông tin và tri thức chưa từng có trong xã hội tiền hiện đại. Về mặt này, Jikji có thể nói là một di sản văn hóa để lại một số tiếc nuối. Tuy nhiên, điều đáng tiếc chỉ là điều đáng tiếc và điều đó không có nghĩa là giá trị của thành tựu công nghệ đầu tiên trên thế giới này bị mất đi. Để kỷ niệm những thành tựu này, Giải thưởng Jikji của UNESCO đã được thành lập vào năm 2004 với mục đích kỷ niệm việc Jikjisimcheyojeol

được công nhận là Di sản Thế giới của UNESCO và thực hiện dự án Di sản Tư liệu Thế giới. Giải thưởng Jikji của UNESCO này đã được trao cho các cá nhân và tổ chức đã đóng góp vào việc bảo tồn và sử dụng Di sản Tư liệu Thế giới hai năm một lần kể từ năm 2005, tất cả tiền thưởng và chi phí đều do thành phố Cheongju chi trả. Ngoài ra, nhờ giá trị của Jikji, Trung tâm Di sản Quốc tế, một tổ chức trực thuộc UNESCO, đã được xây dựng tại Cheongju, nơi Jikji được tạo ra. Trung tâm Di sản Tư liệu Quốc tế của UNESCO được xác nhận thành lập tại Cheongju năm 2017, chính thức hoàn tất thủ tục thành lập vào tháng 7 năm 2020, và sẽ được xây dựng tại Cheongju vào năm 2023 với tổng diện tích sàn là 2. 307 mét vuông, với một tầng hầm và bốn tầng trên mặt đất.

Trung tâm Di sản Tư liệu Quốc tế của UNESCO là một tổ chức mới thuộc UNESCO và là tổ chức quốc tế đầu tiên trong lĩnh vực di sản tư liệu của UNESCO. Sau khi trung tâm này hoàn công, việc phát triển hệ thống giám sát Di sản Kỷ lục Thế giới, đào tạo các chuyên gia về di sản tư liệu, thiết lập nền tảng kỹ thuật số lưu trữ, phát triển các nội dung giáo dục, thu thập, bảo quản và quản lý hồ sơ quốc gia. . . Người ta nói rằng trung tâm sẽ đóng vai trò quan trọng trong việc quản lý hậu kỳ các hồ sơ được đăng ký là Di sản Tư liệu Thế giới và hỗ trợ nghiên cứu các chính sách liên quan. Ngoài ra, những địa danh có thể giới thiệu với mọi người về Cheongju bao gồm Bảo tàng Nghệ thuật Hiện đại Quốc gia Cheongju, Cheongnamdae và Pháo đài Sangdangsanseong. Đầu tiên đó là Bảo tàng Nghệ thuật Hiện đại Quốc gia Cheongju. Đương nhiên ở Cheongju có những cơ sở văn hóa như Bảo tàng Quốc gia Cheongju và Trung tâm Nghệ thuật Cheongju nhưng Bảo tàng Nghệ thuật Hiện đại Quốc gia Cheongju là một địa điểm có nét rất độc đáo trong số đó. Đây chính là một công trình nơi du khách có thể xem các tác phẩm nghệ thuật khác nhau được bảo quản trong kho thông qua một kho lưu trữ mở. Bảo tàng Nghệ thuật Hiện đại Quốc gia Cheongju ở Hàn Quốc bao gồm bốn bảo tàng nghệ thuật: Gwacheon, Deoksugung, Seoul và Cheongju. Hệ thống lưu trữ mở cũng là cấu trúc mà chỉ Bảo tàng Cheongju mới có. Bảo tàng Nghệ thuật Hiện đại Quốc gia Cheongju, khai trương vào năm 2018, ban đầu được dự kiến xây dựng thành Trung tâm Bảo tồn Bộ sưu tập Nghệ thuật Quốc gia để lưu giữ các bộ sưu tập của Bảo tàng Nghệ thuật Hiện đại Quốc gia Cheongju. Tuy nhiên, vào thời điểm đó, thị trường Cheongju đã chỉ ra sự thiếu thốn các cơ sở văn hóa bên ngoài khu vực thủ đô, và tích cực lập luận rằng các cơ sở trực thuộc Bảo tàng Nghệ thuật Hiện đại Quốc gia Cheongju nên được xây dựng như một bảo tàng nghệ thuật với các cuộc triển lãm. Sau khi thu thập ý kiến, ngân sách đã được tăng lên sau khi thông qua nghiên cứu khả thi sơ bộ, và do đó Bảo tàng Nghệ thuật Hiện đại Quốc gia Cheongju đã được mở cửa. Do đó, cấu trúc tổng thể được thiết kế như một không gian với mục đích lưu trữ nổi bật, và từ những năm 2000, nhiều bảo tàng và phòng trưng bày nghệ thuật nổi tiếng của nước ngoài đã được chuyên biệt hóa theo hình thức lưu trữ mở, đó là lý do tại sao bảo tàng có hiện trạng như ngày nay. Vì vậy các công trình bên trong bao gồm phòng triển lãm lưu trữ cố định, kho lưu trữ nhiệt độ và độ ẩm không đổi, phòng triển lãm lưu trữ đặc biệt và phòng triển lãm kế hoạch đã được xây dựng, và một số tác phẩm lưu trữ lần lượt được mở cửa cho khách tham

quan. Với quy mô có thể lưu trữ tổng cộng 11. 000 tác phẩm nghệ thuật, bảo tàng hiện được lưu giữ với khoảng 4. 000 tác phẩm, một nửa trong số khoảng 8. 000 tác phẩm trong bộ sưu tập của Bảo tàng Nghệ thuật Hiện đại Quốc gia Cheongju, Hàn Quốc. Tổng cộng có khoảng 6. 000 tác phẩm được lưu trữ và triển lãm, bao gồm khoảng 2. 000 tác phẩm nghệ thuật thuộc sở hữu của chính phủ và các tác phẩm nghệ thuật từ Ngân hàng Nghệ thuật.

Lần này, tôi muốn giới thiệu với các bạn về Cheongnamdae. Cheongnamdae có nghĩa là Nhà Xanh của phương nam. Như các bạn đã biết, Nhà Xanh là văn phòng và nơi ở của Tổng thống Hàn Quốc. Cheongnamdae có tên như vậy vì đây là một dinh thự nghỉ dưỡng cho Tổng thống Hàn Quốc trong khoảng 20 năm từ năm 1983 đến năm 2003. Cheongnamdae là nơi năm tổng thống là: Chun Doo-hwan, Roh Tae-woo, Kim Young-sam, Kim Dae-jung và Roh Moo-hyun, đã nghỉ ngơi và làm các công việc của chính phủ trong kỳ nghỉ lễ. Kể từ khi được mở cửa cho công chúng vào tháng 4 năm 2003 dưới thời chính quyền Roh Moo-hyun, nơi này đã trở thành một điểm du lịch theo chủ đề tổng thống được nhiều du khách đến thăm. Cheongnamdae, nơi có phong cảnh tuyệt đẹp nhìn ra hồ Daecheong, có nhiều tiện ích như tòa nhà chính, Ogakjeong, sân golf, trại cá, ngôi nhà tranh, Trung tâm Văn hóa và Lịch sử của Tổng thống, Quảng trường Tổng thống, hoa viên, hồ bơi, và một đài phun nước theo điệu nhạc, con đường tổng thống. . . Ngoài trừ việc cấm chụp ảnh ở tòa nhà chính, du khách có thể tùy ý tham quan.

Địa điểm cuối cùng tôi muốn giới thiệu là Pháo đài Sangdangsanseong. Như các bạn đã biết, pháo đài là một lâu đài được xây dựng trên núi. Sangdang là địa danh cũ của Cheongju, nhưng theo lịch sử Goryeo, nơi này đã được đặt tên khi Baekjae lần đầu tiên chiếm đóng khu vực Cheongju. Ban đầu pháo đài được xây dựng như một pháo đài bằng đất từ Baekjae, tuy nhiên nó được xây dựng lại thành Pháo đài đá Seokseong vào năm 1716 dưới thời trị vì của Vua Sukjong của triều đại Joseon và giữ nguyên trạng cho đến ngày nay. Những bức tường pháo đài của các thành phố lớn vốn có thể dễ dàng tiếp cận ở Hàn Quốc đã có nhiều trường hợp bị phá bỏ hoặc bị tổn hại trong quá trình hiện đại hóa và đô thị hóa. Bởi vì Pháo đài Sangdangsanseong này nằm ở ngoại ô thành phố, trên một ngọn đồi qua một con đèo, đây là một ví dụ tiêu biểu cho việc bảo tồn tốt không chỉ hình dạng của pháo đài trong triều đại Joseon, mà còn là khung cảnh thiên nhiên xung quanh và cấu trúc của con đường di chuyển. Chính vì vậy, pháo đài Sangdangsanseong không chỉ giữ được hình thái kiến trúc pháo đài và cảnh quan của bán đảo Triều Tiên mà còn là một di sản văn hóa có giá trị lịch sử cao. Vì đây là một pháo đài đã tồn tại trong một thời gian dài, giống như nhiều pháo đài khác, đá bị bào mòn thời gian để lộ ra nền móng tồi tàn, nhưng ngay cả điều đó hiện trạng pháo đài vẫn được đánh giá tốt. Có rất nhiều nơi có những bức tường đá xây dựng được bảo tồn rất đẹp, vì vậy đây là một địa điểm rất tốt để ghé thăm dã ngoại. Nếu đi lên Pháo đài Sangdangsanseong, chúng ta có thể nhìn được trung tâm thành phố Cheongju trong tầm mắt, và ở đây còn có các tiện ích giải trí như nhà hàng, cơ sở du lịch cùng với những con đường mòn đi bộ. Pháo đài có hình tròn và bao quanh một thung lũng nhỏ, bên trong có một ngôi làng bán nhiều loại thực phẩm địa phương.

Toàn khu vực Chungcheongbuk và Thành phố Daejeon được gọi là khu vực Jungwon là chiến trường của thời kỳ Ba Vương quốc trong thế kỷ thứ 5 và thứ 6. Trong bối cảnh lịch sử này, đây cũng là khu vực phân bố một số lượng lớn các văn phòng chính phủ. Ngoài ra, nó đã được đưa vào Danh sách Dự kiến Di sản Thế giới của UNESCO dưới tên của nhóm thành quách xây dựng trên núi trong khu vực Jungbu, những thành quách được xây dựng trên núi trong nhóm này bao gồm: Đó là thành Samnyeonsanseong, thành Sangdangsanseong, thành Jangmisanseong, . . . Bằng cách này, chúng ta sẽ kết thúc chuyến đi đến Cheongju, thủ phủ của Chungcheongbuk. Trong tiết thứ ba, chúng ta sẽ nhìn quanh Jincheon và tìm hiểu văn hóa thể thao của Hàn Quốc.

Phần thứ 3 | Câu chuyện và tài nguyên văn hóa của Jincheon

Địa điểm chúng ta sẽ tìm hiểu trong phần 3 này là Jincheon. Jincheon là quận có tốc độ tăng trưởng vượt bậc chỉ đứng sau thành phố Cheongju tại tỉnh Chungcheongbuk. Đây là nơi có tốc độ phát triển và tăng trưởng nhanh hơn các khu vực tự trị xung quanh, tỉ lệ tăng dân số cũng cao ở mức cấp quận/huyện. Nơi đây được xem và nổi tiếng là nơi đáng sống đến mức từ xa xưa đã có cụm từ sinh ra và lớn lên ở Jincheon, với nghĩa sống ở Jincheon. Do ít chịu thiệt hại của thiên tai, đồng thời có vùng đồng bằng rộng lớn trải dài nhiều năm đạt vụ mùa bội thu khiến danh tiếng đáng sống của huyện được duy trì trong suốt thời đại nông nghiệp. Để giảm bớt mật độ quá dày của vùng thủ đô, chính phủ Hàn Quốc đã thực hiện dự án thành phố đổi mới mang tính chính sách từ năm 2007. Chính sách này đóng vai trò thúc đẩy sự gia tăng dân số của huyện Jincheon. Dự án thành phố đổi mới đã phân tán và di dời các tổ chức công và cơ quan nghiên cứu do chính phủ tài trợ vốn tập trung ở Seoul và khu vực lân cận Seoul đến các vùng địa phương. Đây là hình thức quy hoạch đô thị lấy một khu vực làm trung tâm, xây dựng thành phố quy hoạch nhỏ và nuôi dưỡng nó trở thành trung tâm phát triển của khu vực. Trong kế hoạch di dời 112 trên tổng số 153 cơ quan đến các khu vực khác nhau trên toàn quốc và xây dựng các thành phố đổi mới, Jincheon-gun đã thành công trong việc xây dựng thành phố đổi mới Chungbuk cùng với Eumseong-gun bên cạnh. với thành quả là 16 cơ quan được chuyển đến và thành lập Bệnh viện Cứu hỏa Quốc gia. Thêm vào đó, trong dự án thành phố đổi mới Chungbuk do Jincheon-gun và Eumseong-gun cùng thực hiện, Jincheon-gun đang hưởng những lợi ích thực sự của việc tăng dân số. Jincheon-gun đã ghi nhận tỷ lệ tăng dân số đạt mức 3,66% vào năm 2019, đứng thứ 5 trong số các thành phố và quận, huyện trên toàn quốc; đứng thứ 1 trong số các thành phố và quận ngoài thủ đô nhờ nhà ở công cộng quy mô lớn được xây dựng trong khu vực thành phố đổi mới. Ngoài ra, thành phố đổi mới Chungbuk là thành phố trẻ nhất trong số các thành phố đổi mới trên cả Hàn Quốc với độ tuổi trung bình đạt 31,5 tuổi, đồng thời cũng là thành phố có tỷ lệ dân số trẻ cao nhất. Theo đó, có thể thấy các khu mua sắm của thành phố đổi mới Chungbuk đầy rẫy kids cafe, phòng khám nhi, quán cà phê và trung tâm dạy thêm. Tài nguyên du lịch ở Jincheon-gun có thung lũng Yeongok với đền chùa, công viên sinh thái, nơi sinh của Kim Yushin, cây cầu đá hơn một nghìn năm tuổi mang tên Jincheon Nongdari, công viên chủ đề lịch sử, rừng nghỉ dưỡng thiên nhiên và hồ Chopyeong nổi tiếng về câu cá.

Tuy nhiên, nếu yêu cầu người Hàn Quốc hiện đại chọn những địa điểm nổi tiếng nhất ở Jincheon, họ có thể chọn Trung tâm huấn luyện tổng hợp Đội tuyển Quốc gia Jincheon mang tên Làng vận động viên Jincheon. Trung tâm huấn luyện tổng hợp Đội tuyển Quốc gia Jincheon thường được gọi với tên Làng vận động viên Jincheon là trung tâm huấn luyện chuyên nghiệp được xây dựng để huấn luyện các vận động viên thể thao cấp đội tuyển quốc gia của Hàn Quốc. Làng vận động viên Jincheon là làng vận



운동원 국가 thứ hai được xây dựng sau làng vận động viên Taereung, nằm ở Nowon-gu, Seoul. Làng vận động viên Jincheon là dự án được xây dựng liên quan đến câu chuyện về Làng vận động viên Taereung không liên quan đến dự án thành phố đổi mới. Có lẽ trước khi nói về Làng vận động viên Jincheon, chúng ta nên đề cập một chút về Làng vận động viên Taereung cho phù hợp mạch câu chuyện. Quay ngược thời gian về năm 1964. Năm 1964 là năm diễn ra Thế vận hội Tokyo lần thứ 18. Vào thời điểm đó, Hàn Quốc đã cử một đoàn quy mô lớn hơn so với tình hình đất nước tới Thế vận hội Tokyo trên góc độ cạnh tranh về mặt thể chế chính trị với nhóm người Triều Tiên đang sinh sống tại Nhật Bản.

Đoàn gồm 165 vận động viên và 59 cán bộ. So với quy mô 36 vận động viên, 31 cán bộ tham dự Thế vận hội Rome năm 1960; 55 vận động viên và 21 cán bộ được cử đến Thế vận hội Mexico năm 1968. Phái đoàn lần này có quy mô lớn hơn rất nhiều. Tại Thế vận hội Tokyo lần này, đội tuyển quốc gia Hàn Quốc đã lập kỷ lục giành được nhiều huy chương nhất trong lịch sử, với 2 huy chương bạc và 1 huy chương đồng. Mặc dù đây là thành tích này là tốt nhất trong lịch sử, nhưng khi so với việc tổng động viên toàn bộ lực lượng có thể trong nước và tham gia với quy mô lớn nhất từ trước đến nay, kết quả này có phần đáng thất vọng. Vì vậy, chính quyền Park Chung-hee thời bấy giờ đã đưa ra kết luận rằng cần phải có một cơ sở đào tạo thể thao toàn diện sau cuộc thảo luận do chính phủ dẫn đầu để tìm hiểu lý do tại sao kết quả lại đạt được kém như vậy. Đó là kết quả của việc áp dụng hệ thống huấn luyện quốc gia trên nền tảng thể thao tinh hoa do chính phủ dẫn đầu vốn được Liên Xô và các nước Đông Âu thực hiện trong thời kỳ Chiến tranh Lạnh. Vào thời điểm đó, chính phủ Hàn Quốc đã chọn địa điểm đặt cơ sở huấn luyện thể thao quốc gia là nơi gần Taereung, lăng mộ Hoàng hậu Munjeong thuộc triều đại Joseon, đẩy nhanh xây dựng làng vận động viên, và bắt đầu xây dựng tòa nhà đầu tiên vào tháng 6 năm 1966. Làng vận động viên Taereung được bắt đầu xây dựng với lý do trên, lại càng được nhấn mạnh hơn nữa khi Hàn Quốc có cơ hội tổ chức Đại hội thể thao châu Á 1986 tại Seoul và Thế vận hội Seoul lần thứ 24 năm 1988. Kể từ đó, nó liên tục được mở rộng cho đến khi Oryungwan, trung tâm huấn luyện bóng ném, cầu lông và điền kinh trong nhà, được xây dựng vào năm 2000. Từ đó, nơi này trở thành trung tâm huấn luyện thể thao toàn diện quốc gia duy nhất của Hàn Quốc vào thời bấy giờ.

Tuy nhiên, năm 2009, làng vận động viên Taereung này đã đối mặt với một bước ngoặt lớn.

Tháng 6 năm 2009, 40 mộ vua chúa triều đại Joseon nằm trong khu 18 lăng mộ triều đình của triều đại Joseon tại Taereung và Gangneung vốn tiếp giáp trực tiếp với Làng vận động viên Taereung, đã được UNESCO công nhận là Di sản Thế giới với tên gọi Lăng mộ triều đình Joseon. Khi đó, UNESCO đã đồng ý công nhận nơi này là Di sản Thế giới với điều kiện quang cảnh nhìn từ lăng mộ phải được khôi phục lại nguyên trạng cho đúng với quang cảnh tại thời điểm lăng mộ được xây dựng. Theo đó, Làng vận động viên Taereung, từng được xây dựng bằng cách lấn chiếm các lăng mộ triều đình Joseon gồm Taereung và Gangneung buộc phải di dời sang nơi khác.

Tuy nhiên, trên thực tế, câu chuyện di dời Làng vận động viên Taereung không phải ập đến vì lý do trên vào năm 2009. Nhiều cơ sở vật chất trở nên lạc hậu, việc tu sửa rộng rãi là điều không thể tránh khỏi. Đồng thời, công tác chuẩn bị để xin UNESCO công nhận lăng mộ triều đình của triều đại Joseon là Di sản Thế giới đã được tiến hành từ khá sớm.

Từ năm 2003, kế hoạch xây dựng làng vận động viên thay thế làng vận động viên Taereung đã được thực hiện.

Vì vậy, năm 2004, Jincheon-gun thuộc tỉnh Chungcheongbuk đã được chọn trong số các nơi cân nhắc để xây dựng làng vận động viên quốc gia.

Lúc bấy giờ, Jincheon là thành phố nhỏ với số dân 70. 000 người đã tập trung mọi nguồn lực vào việc xây dựng dự án làng vận động viên quốc gia vốn là một trong những dự án cốt lõi để phát triển thành phố.

Làng vận động viên quốc gia là cơ quan rất hấp dẫn đối với các thành phố vừa và nhỏ. Trường hợp của trung tâm Taereung, mặc dù đây là tên gọi có nguồn gốc từ lăng mộ triều đình của triều đại Joseon, nhưng với ảnh hưởng của nhiều loại phương tiện truyền thông suốt hơn 40 năm qua, nơi này đã được nhận thức là quê hương của các đội tuyển quốc gia. Đến mức Taereung được sử dụng như một biểu tượng của đội tuyển quốc gia. Với lịch sử lâu đời vốn là trung tâm huấn luyện thể thao của Hàn Quốc từ những năm 1960, nơi đây được xem là điểm đến trong mơ, là sân tập luyện mơ ước, đích đến ấp ủ từ lâu trong cuộc đời của các vận động viên. Và sự công nhận rộng rãi về mặt vị thế như trên, Taereung không chỉ là nơi tổ chức thường niên, cách năm các giải vô địch thế giới các môn thể thao khác nhau mà còn luôn tồn tại vững vàng trong suy nghĩ của người dân do Thế vận hội, diễn ra ít nhất bốn năm một lần. Thời điểm đó, việc xây dựng làng vận động viên quốc gia không chỉ nhằm vào hiệu quả kinh tế từ việc tập trung các vận động viên và chuyên gia hỗ trợ họ sinh hoạt và luyện tập trong một không gian chung mà nơi đây sẽ tiếp tục được giới thiệu như một thánh địa của thể thao Hàn Quốc đến các vận động viên trên cả nước và xa hơn là với người dân cả nước trong tương lai. Đồng thời, nơi này cũng trở thành lựa chọn có tác động tích cực rất lớn đến hiệu ứng xây dựng thương hiệu của thành phố vừa và nhỏ trên quan điểm tạo nên cơ hội tiêu dùng. Và cuối cùng Jincheon đã được chọn là nơi xây dựng làng vận động viên quốc gia mới đầy hấp dẫn như trên.

Giai đoạn 1 của dự án xây dựng Làng vận động viên Jincheon bắt đầu vào tháng 2 năm 2009, trước khi được UNESCO công nhận các lăng mộ triều đình của triều đại Joseon là Di sản Thế giới và hoàn thành vào tháng 8 năm 2011. Giai đoạn 2 của dự án bắt đầu nhằm thay thế hoàn toàn Làng vận động viên Taereung, bắt đầu vào tháng 12 năm 2013 và hoàn thành vào tháng 9 năm 2017. Cuối cùng, ngày 27 tháng 9 năm 2017, Làng vận động viên Jincheon đã chính thức được đưa vào sử dụng. Làng vận động viên Jincheon có diện tích khuôn viên là 1. 635. 891 mét vuông gấp năm lần diện tích của Làng vận động viên Taereung với vốn đầu tư xây dựng và hoàn thiện lên đến 500 tỉ won. Nơi đây trang bị hồ bơi, đường chạy việt dã, trường bắn ngoài trời, trường bắn trong nhà, sân thể thao, sân bóng rổ, sân bóng chày, sân bóng mềm, bãi chèo thuyền, sân tập chèo thuyền, sân quần vợt trong nhà, sân tập luyện bắn cung, sân tập trượt

băng, sân đua xe đạp, trung tâm vận động viên, trung tâm huấn luyện thể chất, ký túc xá cho các tuyển thủ, cơ sở vật chất hỗ trợ tuyển thủ, sân tập ném, sân tập bóng bầu dục và sân tập khúc côn cầu giúp các vận động viên của 35 môn thể thao có thể yên tâm tập luyện. Ngoại trừ một số môn như bóng đá vốn đã được hiệp hội xây dựng các cơ sở huấn luyện chuyên biệt từ trước, hầu hết tất cả các môn Olympic đều tập huấn tại đây. Có thể nói rằng, thể vận hội bắt đầu được biết đến và nổi tiếng rộng rãi từ Thế vận hội mùa đông Pyeongchang 2018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Hàn Quốc. Chúng ta có thể thấy ở nơi này, hệ thống làng vận động viên vẫn không bị giảm bớt và vận hành đầy đủ ngay cả với các môn thể thao không được nhiều sự quan tâm và khó có vị trí vững chắc trong lòng người hâm mộ. Vào thời điểm tuổi đời của Làng vận động viên Taereung gần đến hạn sử dụng, cùng với việc Taereung và Gangneung gần đó được công nhận là di sản thể giới, đã có ý kiến về việc nên giữ hay phá bỏ nơi này. Có thể kỳ vọng thái độ và quan điểm đối với thể thao của Hàn Quốc sẽ không có những thay đổi lớn trong tương lai khi nhìn vào nguồn lực tài chính khổng lồ được đầu tư vào Làng vận động viên Jincheon.

Đây là nơi xuất hiện cụm từ thể thao tinh hoa, vốn là một trong những từ Konglish (từ Hàn Quốc kiểu Anh) chủ yếu chỉ được sử dụng ở Hàn Quốc. Thể thao tinh hoa để chỉ việc tuyển chọn những trẻ em có năng khiếu trong các môn thể thao từ độ tuổi còn nhỏ và tiến hành đào tạo một cách tập trung và có hệ thống với những huấn luyện viên chuyên môn xuyên suốt từ chương trình tiểu học đến trung học phổ thông. Trong hệ thống thể thao tinh hoa này, các vận động viên thuộc những môn thể thao chưa phổ biến sẽ nhận được trợ cấp của chính phủ và tùy trường hợp có thể nhận được tài trợ hoặc kí quảng cáo với các doanh nghiệp. Nói một cách đơn giản, thể thao tinh hoa là hình thức hỗ trợ bằng ngân sách nhà nước một cách có hệ thống như hệ thống chăm sóc vận động viên hoặc chương trình hỗ trợ thanh thiếu niên tham gia giải đấu chuyên nghiệp để các vận động viên của các môn thi đấu không có giải thi đấu nhà nghề vẫn có thể toàn tâm toàn ý tập luyện và phát triển. Trên thực tế, chỉ khác nhau về thuật ngữ, nhiều quốc gia trên thế giới đã và đang nuôi dưỡng các vận động viên bằng hệ thống thể thao tinh hoa, đặc biệt đối với các môn thi đấu Thế vận hội. Với việc thành lập Làng vận động viên Jincheon, Jincheon giờ đây sẽ đóng vai trò thiết thực và mang tính biểu tượng như là trung tâm thể thao của Hàn Quốc trong nhiều thập kỷ tới. Mồ hôi, nước mắt, ý chí và nỗ lực của rất nhiều vận động viên sẽ đơm hoa kết trái tại Jincheon. Câu chuyện về Jincheon xin được kết thúc tại đây. Trong tiết 4, chúng ta sẽ cùng nhìn lại Chungju và Jecheon và chia sẻ về các câu chuyện thú vị tại những nơi này.

Phần thứ 4 | Câu chuyện và tài nguyên văn hóa của Chungju và Jecheon

Trong phần 4 này, chúng ta sẽ cùng nhìn lại Chungju và Jecheon và chia sẻ về các câu chuyện thú vị tại hai địa phương. Chúng ta hãy cùng đến Chungju trước nhé? Chungju là thành phố nằm ở phía đông bắc tỉnh Chungcheongbuk, là thành phố lớn thứ 2 của tỉnh với dân số khoảng 210.000 người. Từ Chung trong tên tỉnh Chungcheong có nguồn gốc từ từ Chung trong tên gọi của thành phố Chungju. Nơi đây là khu vực nằm sâu trong đất liền, cách xa biển; được bao quanh bởi các dãy núi trong đó có núi Worak, nên chênh lệch nhiệt độ hàng ngày rất lớn. Do đó, hàm lượng đường trong táo Chungju, một đặc sản nông nghiệp của địa phương rất cao. Do nằm ở trung tâm bán đảo Triều Tiên nên từ xa xưa, Chungju được coi là nơi có vị trí chiến lược vô cùng quan trọng. Vì vậy, vùng Chungju thường bị chiếm đóng bởi các quốc gia hùng mạnh nhất thời bấy giờ, đặc biệt là vào thời Tam Quốc. Chungju thuộc về Baekje từ sau thời Tam Quốc đến thế kỷ thứ 4, nhưng khi vua Gwanggaeto của Vương quốc Goguryeo mở rộng lãnh thổ, ông đã đánh đuổi quân Baekje và chiếm toàn bộ Chungju. Lúc này Chungju được gọi với tên Gukwonseong.

Năm 551, Vua Jinheung của Silla mở rộng lãnh thổ và chiếm đóng Chungju. Sau đó, năm 557, Silla chỉ định toàn bộ vùng Chungju làm thành đô với quy mô tương đương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hiện nay. Năm 558, những người giàu có sống gần thủ đô Seorabeol đã chuyển đến đây và xây dựng, phát triển thành phố. Trước cuộc chinh phạt Tam Quốc của Silla, nơi này được gọi là Gukwongyeong là một trong hai thành đô. Sau cuộc chinh phạt Tam Quốc của Silla, nơi này đã được đổi thành Jungwongyeong, là một trong năm thành đô. Lúc này, Jungwon có nghĩa là trung tâm của lãnh thổ đất nước. Bảo vật quốc gia số 6 đang được bảo quản ở Chungju mang tên tháp Jungang có tên chính thức là tháp đá 7 tầng Tappyeong-ri, Chungju. Qua đó có thể thấy rằng nơi đây là trung tâm của đất nước vào thời điểm đó. Trong số những di sản văn hóa còn lại ở Chungju, những di sản liên quan đến thời Tam Quốc có tên tuổi cao.

Tiêu biểu, chúng ta hãy cùng lắng nghe lời giới thiệu khái quát về thành Jangmisan, bia Chungju Goguryeo và Tangeumdae. Trước tiên, là thành Jangmisan thời Tam Quốc. Vì khu vực này là nơi thường xảy ra giao chiến nên có nhiều ý kiến khác nhau về chủ nhân thực sự đắp nên thành này. Trước đây, có ý kiến cho rằng đây là thành có từ thời Goguryeo, nhưng qua quá trình khai quật, người ta ước tính rằng Baekje là đất nước đầu tiên xây dựng nó, sau đó Goguryeo chiếm đóng một thời gian và cuối cùng được Silla chiếm lĩnh. Thành Jangmisan được đưa vào danh sách xem xét Di sản Thế giới của UNESCO, là một trong số thành quách tại nền Sanseong-gun trong trung tâm miền Trung. Bia Chungju Goguryeo là bia đá thời Goguryeo duy nhất còn sót lại tại Hàn Quốc. Goguryeo đạt đến thời kỳ hoàng kim khi vua Gwanggaeto, người trị vì từ năm

391 đến năm 412, tiên phong mở rộng lãnh thổ ra phía bắc và con trai ông, vua Jangsu trị vì từ năm 412 đến năm 491, đẩy mạnh chính sách hướng nam. Bia Chungju Goguryeo được lập bởi Vua Jangsu khi ông nắm quyền kiểm soát khu vực Jungwon. Bia có chiều cao 203 cm, chiều rộng mặt trước 55 cm, chiều rộng bên trái 33 cm; được làm bằng đá tự nhiên hình trụ, bốn mặt đều khắc chữ. Hình dạng của nó tương tự với bia tưởng nhớ vua Gwanggaeto ở Mãn Châu. Có tổng cộng 528 ký tự được khắc trên bia Chungju Guryeo, với trung bình 23 ký tự trên mỗi dòng. Người ta nói rằng việc giải thích rất khó khăn do bị hao mòn nghiêm trọng. Đây là nội dung tuyên bố Goguryeo chiếm được Wiryeseong, thủ đô của Bách Tế, chiếm khu vực trung tâm của Bán đảo Triều Tiên và mở rộng lãnh thổ đến khu vực Chungju. Di tích Chungju và Guryeo là những tư liệu quý giá thể hiện mối quan hệ giữa Goguryeo, Silla và Baekje trong thế kỷ 4 và 5, và được coi là Bảo vật Quốc gia số 205 của Hàn Quốc.

Và Chungju Tangeumdae là một di tích lịch sử liên quan đến Urreuk của Gaya trong thời Tam Quốc và Tướng Sinrip của Joseon trong Chiến tranh Imjin. Đầu tiên, Gaya là một liên minh của các quốc gia cổ đại như Daegaya, Geumgwangaya, Aragaya và Sogaya tồn tại ở phần phía nam của Bán đảo Triều Tiên từ năm 42 đến năm 562 SCN. Trong số đó, Ureuk, người sinh ra ở Daegaya, là một nhạc sĩ. Ông là người đầu tiên phát minh ra một nhạc cụ có tên là gayageum với 12 dây. Cùng với Wang San-ak và Park Yeon, Lee U-reuk là một trong ba tể nạn lớn trong lịch sử Hàn Quốc. Là một nhạc sĩ, người ta cho rằng Ureuk đã sắp xếp và sáng tác nhạc bản địa của từng quốc gia mà anh ta thuộc về. Vào khoảng năm 551, khi Silla đang mở rộng lãnh thổ, Ureuk đã truyền từ Gaya sang Silla cùng với đệ tử của mình. Tại thời điểm này, Urreuk biểu diễn trước mặt Vua Jinheung của Silla, và sau khi nhận được lời khen ngợi từ Vua Jinheung, ông đã được cho một dinh thự ở Gukwongyeong, bây giờ là Chungju, và sống ở đó. Ureuk chọn khu vực Chungju, xây dựng nơi ở trên một ngọn núi có khung cảnh rất đẹp với dòng sông Namhan nhân nhả lượn quanh vách núi Giam và rừng thông tươi tốt, và chơi gayageum trước mặt những thanh niên Silla đương thời. Những người nghe âm thanh đó đã đắm chìm trong sức hút của tiếng đàn, họ tụ họp lại với nhau, tạo thành một ngôi làng và sinh sống ở đó. Vì vậy, người ta bắt đầu gọi khu vực mà Ureuk chơi gayageum là Tangeumdae (Đàn cầm đài), có nghĩa là nơi chơi gayageum, tên gọi ấy còn truyền lại đến ngày nay. Mặt khác, Tangeumdae cũng là nơi diễn ra trận chiến Tangeumdae trong Chiến tranh Nhâm Thìn (Nhâm Thìn Oa Loạn- chiến tranh xâm lược của Nhật Bản) năm 1592, khi võ tướng Shinrip chỉ huy 8. 000 binh sĩ chiến đấu chống lại quân của Kato Kiyomasa và Konishi Yukinaga. Chúng ta sẽ nghe chi tiết hơn về cuộc chiến Nhâm Thân trong tuần thứ 6 và tuần thứ 8, khi đến với Jeollanam và Gyeongsangnam. Trước hết, chúng ta có thể hiểu đó là cuộc chiến xảy ra khi Toyotomi Hideyoshi, người thống nhất Nhật Bản thời Chiến quốc, xâm lược Bán đảo Triều Tiên để chinh phục triều đại Joseon và nhà Minh. Vách đá có tên Yeoldudae trên đồi sông Namhan ở phía bắc Tangeumdae được cho là nơi Shinrip đã lên xuống 12 lần trong cuộc chiến Nhâm Thân bằng cách ngâm dây cung trong nước và bắn lên để khuyến khích binh sĩ. Họ đã chiến đấu rất ác liệt, nhưng thế trận không thuận lợi, và cuối cùng, họ bị đánh bại, Shinrip đã tự sát bằng cách nhảy xuống sông.

Tiếp theo, chúng ta sẽ đến với JecheonJecheon thuộc về Chungcheongbuk, tuy nhiên, đây là thành phố mang bản sắc của Chungbuk rất mờ nhạt và mang đậm bản sắc tổng thể của Gangwon Điều này là do giao lưu nhân lực ở Jecheon và phần phi nam Gangwon đã tích cực trong lịch sử. Do đó, ngôn ngữ và văn hóa của vùng này giống với vùng đông nam Yeongdong hơn là Chungcheong. Ngay cả sau thời hiện đại, Jecheon đã phát triển như một trung tâm giao thông kết nối Yeongwol, Jeongseon và Taebaek với Gangwon và đã chia sẻ một phần đáng kể bản sắc của mình như một khu vực sản xuất xi măng và cấu trúc của ngành công nghiệp xi măng với khu vực phía nam của Gangwon. Tuy nhiên, Jecheon là một thành phố với một biểu tượng nhất định khá quan trọng khi thảo luận về Chungcheong. Lý do là, như tôi đã đề cập ngắn gọn trong phần đầu tiên đó là Hoseo tên gọi cũ khác của Chungcheong, có nghĩa là thành phố ôm lấy Uirimji, một hồ nước làm tiêu chuẩn cho cái tên phía tây của hồ. Tính biểu tượng này cũng được phản ánh trong tên thành phố. Từ ""je"" khi đề cập đến ""jecheon"" có nghĩa là bờ đê hoặc con đập. Cuối cùng, tên thành phố Jecheon có nghĩa đen là thành phố Uirimji.

Uirimji là một trong những hồ chứa lâu đời nhất ở Hàn Quốc cùng với Byeokgolje ở Gimje và Susanje ở Miryang. Không giống như hai hồ chứa còn lại, hồ nước này là vẫn được sử dụng cho nông nghiệp tưới tiêu mặc dù đã có lịch sử lâu đời Một số người nói rằng Uirimji được xây dựng vào thời Tam Hàn, tức là thời đại tiền Tam Quốc, trong khi những người khác nói rằng nó được xây dựng vào thời Tam Quốc sau này. Tuy nhiên, trong mọi trường hợp, Uirimji là hồ chứa có lịch sử rất lâu đời, với bằng chứng trầm tích cho thấy nó có hình dạng tương tự như bây giờ vào khoảng 2. 000 năm trước Với lịch sử lâu đời như vậy, vẫn chưa rõ Uirimji được tạo ra như một hồ nước tự nhiên hay một hồ chứa nhân tạo khi Uirimji mới được hình thành. Tuy nhiên, điều quan trọng là kể từ khi nông nghiệp bắt đầu trên Bán đảo Triều Tiên, Uirimji đã và đang đóng vai trò là công trình thủy lợi quan trọng cung cấp nguồn nước cho toàn bộ khu vực. Điều thực sự quan trọng ở Uirimji, nơi đóng vai trò là nguồn nước sinh hoạt của cư dân địa phương trong suốt hàng nghìn năm lịch sử dựa trên nền tảng nông nghiệp, thực sự là bờ đê chứ không phải là hồ chứa đầy nước. Người ta nói rằng bờ đê của Uirimji đã cao lên dần theo thời gian Khi xây dựng bờ kè, người ta nói rằng phương pháp xây dựng bằng đất mùn đã được sử dụng, như Mongchontoseong và Pungnaposeong, các lâu đài hoàng gia cổ của Baekjae nằm ở Seoul. Ở đây, phương pháp sử dụng đất mùn dùng để chỉ phương pháp gia cố bờ bao hoặc tường thành bằng cách bổ sung các loại vỏ cây như lau sậy, cành cây và vỏ cây tuyết tùng trên nền đất yếu.

Khi chưa có thiết bị công trình dân dụng lớn như ngày nay rất khó để xây dựng một bờ đê lớn. Tuy nhiên, việc có thể xây dựng được bờ đê với quy mô lớn của Uirimji có nghĩa là có một quyền lực lớn trong khu vực Jecheon vào thời điểm đó, hoặc bản thân Uirimji là một công trình rất quan trọng mang tính quốc gia.

Ngày nay, có một thác nước nhân tạo ở một bên của Uirimji, và một thác nước tự nhiên được gọi là Thác Yongchu, cao hơn 10 mét, nằm cách thác nhân tạo một chút

về phía nam. Tuy nhiên, thác Yongchu này là nơi nước chảy ra khi nước trong hồ chứa nhiều hơn mức cần thiết và không phải lúc nào nước cũng chảy, chỉ khi trời mưa hoặc nước được bơm ra bằng máy bơm nhân tạo thì mới có thể thấy được thác nước. Phía trên thác Yongchu có một đài quan sát bằng kính. Nếu đi qua thiết bị cảm biến được cài đặt trên cột bằng sắt, tấm kính đục sẽ chuyển thành màu kính trong suốt và có thể nhìn thấy thác nước đổ xuống. Đây là đài quan sát mang đến cảm giác choáng váng như đang đi trên thác nước và đồng thời cảm nhận được cảm giác mát lạnh của thác, ta vừa có thể vừa đi vừa ngắm làn nước mát rượi dưới chân. Uirimji nổi tiếng với cá mướp vào mùa đông, nước hồ đóng băng với độ dày hơn 8 cm là nơi mọi người đi xe trượt tuyết hoặc khoan lỗ để thưởng thức câu cá mướp. Ngoài ra, vì Uirimji là một biểu tượng và điểm mốc của Jecheon, nên nhà hát của Liên hoan Phim và Âm nhạc Quốc tế Jecheon được tổ chức hàng năm cũng được tổ chức tại đây. Uirimji chiếm vị trí đầu bảng trong số 10 điểm du lịch nên đến được thành phố Jecheon đề cử. Trên thực tế, Uirimji, vùng đất linh thiêng trải qua hàng ngàn năm lịch sử của Bán đảo Triều Tiên, giờ đây đã trở thành điểm dã ngoại quen thuộc của những người dân các vùng lân cận để tìm về kí ức thời thơ ấu. Đây là công viên giải trí lưu giữ nhiều kỷ niệm gia đình, được yêu thích rộng rãi với những con đường mòn đi dạo và các cung đường hẹn hò. Ngoài ra, Bảo tàng Lịch sử Uirimji được xây dựng năm 2019 ở phía bắc của Uirimji đã trở thành một phần trong cuộc sống và sinh hoạt của người dân nơi đây, thể hiện rõ nét giá trị lịch sử, văn hóa và sinh thái của Uirimji. Chuyển đi Chungju và Jecheon lần này có vui không? Ở tiết thứ 5 tiếp theo, chúng ta sẽ cùng đến Boeun nhé. Chúng ta hãy cùng đi và xem xem có những câu chuyện gì đang được ẩn giấu ở đó nhé!

Phần thứ 5 | Câu chuyện và tài nguyên văn hóa của Boeun

Trong tiết thứ 5 này, chúng ta sẽ đi tới Boeun. Boeun-gun nằm ở trung nam của Chungcheongnam. Đây là một thành phố nhỏ với dân số khoảng 32.000 người. Cho đến triều đại Joseon, Boeun vẫn là nơi có nhiều người qua lại do là đầu mối giao thông chính nối những thành phố phồn hoa là Sangju và Cheongju. Nhưng khi tuyến Gyeongbu được mở vào năm 1905, cách xa Boeun, thì tuyến giao thông chính giữa Gyeongsang và khu vực Chungcheong được đổi thành Chupungnyeong, đã làm giảm quy mô của thành phố. Ngay cả hiện nay, đây cũng là một đơn vị trụ quản cơ bản, có nguy cơ xóa sổ cao do dân số vẫn trên đà giảm dần. Về khu vực sống, Boeun nằm trong phạm vi ảnh hưởng của 2 thành phố lớn là Cheongju và Daejeon nhưng nhìn chung, ngoại trừ một phần khu vực phía Tây, Boeun gần khu vực sinh sống của Cheongju hơn. Có những nơi ở Boeun mà chúng ta phải đến thăm. Đó là Beopjusa (Chùa Pháp Trụ) và Samnyeonsanseong (Tam niên sơn thành).

Đầu tiên, Beopjusa là một ngôi chùa Phật giáo được xây dựng trong Công viên quốc gia Songnisan. Đền Beopjusa được thành lập dưới triều đại vua Jinheung của Silla bởi Đại sư Uisin, người trở về từ nhà Đường vào năm 533. Khi trở về Hàn Quốc, ông mang theo kinh Phật từ phương Tây, do đó ngôi chùa này có tên là Beopju (Pháp Trụ), nghĩa là ngôi nhà của Phật pháp. Năm 776, Sư Jinpyo xây dựng lại chùa với quy mô lớn, có quy mô như hiện nay trong suốt thời Cao Ly (Goryeo), nhưng đến năm 1597, ngôi chùa bị thiêu rụi hoàn toàn do quân Nhật tái xâm lược. Sau đó, vào năm 1624, dưới sự lãnh đạo của Tứ Minh (Samyeong) đại sư và Bích Nham (Byeokam) đại sư, ngôi chùa được xây dựng lại và trùng tu đến ngày nay. Được công nhận là một di tích tôn giáo có giá trị học thuật to lớn, và được đặt là di tích lịch sử thứ 503 của Hàn Quốc vào năm 2009. Vào năm 2018, chùa cũng được UNESCO ghi nhận là di sản văn hóa thế giới với tên gọi Sansa - Tăng viện miền núi của Hàn Quốc, cùng với Tongdosa ở Yangsan, Buseoksa ở Yeongju, Bongjeongsa ở Andong, Magoksa ở Gongju, Seonamsa ở Suncheon và Daeheungsa ở Haenam. Chùa Beopjusa nổi tiếng với Palsangjeon, tháp gỗ duy nhất còn sót lại, được xây dựng trước thời cận đại. Ngoài ra, Beopjusa còn là một ngôi chùa quan trọng lưu giữ bức tượng Phật Di Lặc bằng đồng mạ vàng khổng lồ cao 33 mét và nhiều di sản văn hóa khác nhau. Các di sản văn hóa tiêu biểu bao gồm 3 bảo vật quốc gia như Palsangjeon (Bát trạng điện), Đền lồng đá đôi sư tử và Seoknyeonji (Bệ Thạch liên), cùng với nhiều quốc bảo và bảo vật, di tích tự nhiên Jeongi Pumsong (Chính nhị phẩm thông). . . Palsangjeon, Bảo vật Quốc gia số 55 của Hàn Quốc, là một ngôi tháp bằng gỗ được xây dựng lại vào năm 1624, sau khi bị thiêu rụi trong thời Nhật tái xâm lược. Tháp cao 22,7 mét, có hình vuông với 5 gian. Phương thức tổ hợp của tháp Phật có thể được chia thành một tháp làm từ gỗ, tháp gạch và thạch tháp làm từ đá đẽo gọt. Thời kỳ hoàng kim của tháp gỗ là vào thời Tam Quốc và thời Goryeo. Tuy nhiên, Palsangjeon đã được tái thiết vào khoảng giữa triều đại

Joseon, khi cả hai thời đại này (Tam quốc và Goryeo) đều kết thúc. Vì vậy, tháp có cấu trúc hình tròn khá khác lạ, không giống như những tháp gỗ theo kiể cổ đại điển hình.

Các tháp gỗ thông thường sẽ có một cột lớn gọi là trụ tâm ở ngay giữa tháp, làm tôn lên các vệ ttrang trí kim loại được gắn trên đỉnh tháp. Cột chính nằm ở trung tâm, các cấu trúc phân đoạn ở mỗi tầng xung quanh kết hợp với trụ chính, các trụ xếp chồng lên ở các tầng phân bổ tải trọng và tạo thành cấu trúc nâng đỡ tháp. Tuy nhiên, Palsangjeon của Beopjusa có cấu trúc liên hoàn với các cột dài đỡ tải trọng từ tầng một lên tầng cao nhất, lấy trụ tâm là cột to ở giữa làm trung tâm. Đôi đèn lồng sư tử đá của Đền Beopjusa, Quốc bảo số 5 của Hàn Quốc, là đèn lồng đá hình đôi sư tử được làm từ thời Silla Thống nhất. Giống như những chiếc đèn lồng bằng đá khác, phần trên và phần dưới có hình bát giác, nhưng có chạm một đôi sư tử đực và cái, được xem như cột trụ. Hai con sư tử đứng đối diện nhau với chân trước giơ lên, tạo thành tư thế hình chữ X vững chắc khi nhìn từ bên cạnh. Đèn lồng bằng đá với đôi sư tử làm trụ được làm từ thời Silla Thống nhất, ngoài Beopjusa còn sót lại ở một vài nơi, tuy nhiên trong số đó, đèn đá ở Beopjusa được đánh giá là có nét đẹp cân đối vượt trội, và có điều khắc tinh xảo được bảo tồn tốt hơn. Với hình ảnh sư tử nâng cao ngọn đèn, tượng trưng cho chân lý của Đức Phật, thể hiện ý nghĩa bảo vệ Phật pháp. Bệ thạch liên ở Beopjusa, số hiệu quốc gia 64 của Hàn Quốc, là bệ thạch liên có chất liệu đá hoa cương hình hoa sen, được làm vào năm 720 thời Silla sau khi chinh phạt Tam quốc. Bệ thạch liên mang ý nghĩa là một ao sen nhỏ làm bằng đá, vào thời Silla có nghĩa là đá cảnh quan có chứa nước và hoa sen bên trong. Cao 1,95 mét, chu vi 6,65 mét, chân đế bằng đá hình bát giác, phần thất lại ở giữa là tảng đá tạc hình đám mây, trên đó đặt một bệ thạch liên lớn hình cái bát. Được đánh giá có tình trạng bảo quản tuyệt vời, kỹ thuật điêu khắc ưu tú và tạo hình cũng rất tinh xảo. Bệ thạch liên của Beopjusa xứng đáng được gọi là tác phẩm bệ thạch liên tiêu biểu ở Hàn Quốc, giá trị của nó được công nhận là một di tích rất quan trọng thể hiện nghệ thuật chế tác đá thịnh vượng của thời Silla.

Boeun Songni Jeongi Pumsong, Di tích Tự nhiên Quốc gia số 103 của Hàn Quốc, là một cây thông khổng lồ nằm trên lối vào của Beopjusa. Cao 16,5 mét, chu vi thân cây tầm ngang ngực là 5,3 mét, có tuổi thọ ước tính khoảng từ 600 đến 700 năm. Cây này có giai thoại liên quan đến vua Sejo, vị vua của Joseon và được người dân Hàn Quốc xem là di tích thiên nhiên rất nổi tiếng. Giai thoại liên quan đến Sejo như sau. Nghe nói rằng vào năm 1464, năm thứ 10 tại vị của mình, vua Sejo đã đi qua dưới gốc cây này khi hành giá đến Beopjusa ở Songnisan. Tuy nhiên, vì cây thông rất lớn và các cành của nó rủ xuống như một chiếc ô, nên người ta lo ngại rằng kiệu của nhà vua có thể vướng vào nhánh dưới thấp của cây thông. Các thuộc hạ xung quanh nhà vua vừa bảo kiệu vua bị mắc vào cành cây, thì ngay lập tức nhánh cây vươn lên, cho ngự giá an toàn đi qua. Cảm động trước việc một cây thông, chẳng qua chỉ là một giống thực vật, mà cũng biết nhìn ra và tránh đường cho nhà vua, Sejo đã phong cho cây thông làm quan chính nhị phẩm, tương đương với chức bộ trưởng hiện nay, sau này cây thông nhị phẩm đã được bảo vệ trong suốt thời Vương triều Joseon. Giai thoại rất nổi tiếng suốt triều đại Joseon này cũng được tiếp nhận theo hướng phê phán cho đến

thời hiện đại, thời Sejo đang bị đánh giá tiêu cực. Sejo là một trong số các con trai của Sejong Đại đế, người đã phát minh ra Hangeul, và là em trai của Munjong, người kế vị ngai vàng của Vua Sejong. Tuy nhiên, khi Munjong qua đời ở độ tuổi còn rất trẻ, không lâu sau khi lên ngôi, và con trai nhỏ tuổi của ông là Danjong lên ngôi, Sejo đã tiến hành cô lập chính trị và đe dọa Danjong, cuối cùng soán luôn vương quyền. Do Sejo như thế nên ngày nay cũng có kiến giải cho rằng câu chuyện cây thông nhị phẩm là do vua Sejo tạo ra và lan truyền một giai thoại tích cực có liên quan đến bản thân như một sự biện minh để hợp thức hóa hành động đảo chính của mình. Vì vậy, danh tiếng lâu đời của cây thông nhị phẩm đã phai nhạt ở một mức độ nào đó, giá trị tài liệu kể chuyện lịch sử và du lịch cũng bị giảm đi ít nhiều thành giá trị để kiểm chứng chéo. Do ở Trung Quốc cũng có câu chuyện về Thông Ngũ đại phu ở Thái Sơn và Thông Linh Khách ở Hoàng Sơn tương tự. Tuy vậy, giá trị sinh học của Thông nhị phẩm khá cao. Cũng đúng vì ở Đông Á, cây thông có nhiều công dụng như làm vật liệu xây dựng, làm củi đốt, và các phụ phẩm khác như nhựa thông v. v. . . . Nên có rất ít cây có tuổi thọ cao. Ở khía cạnh này, cây thông vốn đã được hoàng gia và chính phủ bảo vệ hàng trăm năm nay, có giá trị cao như một nguồn gen sinh học từ thời Trung cổ trên bán đảo Triều Tiên.

Thậm chí, cây thông này vốn đã nổi tiếng với hình dáng rất đẹp. Cây thông hiện diện với dáng cây đẹp và hùng tráng, thân chính giữa rất thẳng và cành hình nấm độc đảo xòe như mũ vành hoặc chiếc ô. Tuy nhiên, vào năm 1993, Thông nhị phẩm gặp một sự cố lớn khiến phần phía tây bị gãy do gió mạnh làm mất đi vẻ hùng tráng trước đây. Vì là cây thông rất nổi tiếng, có giá trị sinh học cao và dáng đẹp nên hiện nay nhưng nỗ lực để bảo tồn chủng cây thông nhị phẩm đang được tiếp tục từ năm 2001, lấy Viện khoa học lâm nghiệp quốc gia Hàn Quốc làm trung tâm. Cây thông là cây có hoa đực và hoa cái riêng biệt trên cùng một cây. Có thể cho hoa cái thụ phấn với hạt phấn của chúng để tạo dòng thuần chủng, nhưng trong trường hợp này, có hiện tượng cây con yếu, trong đó hạt không sinh ra tốt hoặc không phát triển thành cây tốt. Vì vậy, Viện Khoa học Lâm nghiệp Quốc gia đã chọn ra 5 cá thể thông ở Samcheok, Gangwon trong số các ứng cử viên cây mẹ được chọn từ khắp nơi trên đất nước, và tổ chức lễ cưới với Thông nhị phẩm vào năm 2001. Dự án bảo tồn chủng thông nhị phẩm được tiến hành theo phương thức: thụ phấn hoa của thông nhị phẩm lên hoa cái của cây mẹ trong trạng thái được bọc giấy để tránh cây tự thụ phấn với hoa khác. Và cuối cùng, chúng ta đã có được đứa con đầu là cây thông đầu tiên, sau khi kiểm tra DNA, vào tháng 10 năm 2008, cây con đầu tiên này đã được xác nhận sau cùng là con ruột của Thông nhị phẩm. Viện Khoa học và Lâm nghiệp Quốc gia cũng đã công bố kế hoạch sẽ nhận đăng ký mua và bán khoảng 10 cá thể cho các địa điểm có ý nghĩa như Bảo tàng Độc lập hoặc Tòa nhà Quốc hội.

Tiếp theo, chúng ta hãy cùng nhau dạo quanh Samnyeonsanseong (Tam niên sơn thành). Tam niên sơn thành là pháo đài được Silla dồn tâm huyết xây dựng để làm căn cứ tiền đồn thống nhất Tam quốc. Người ta cho rằng khoảng 10 triệu khối đá hoa cương đã được sử dụng để xây dựng thành. Theo Tam quốc sử ký, thành được xây trong 3 năm và hoàn thành vào năm 470 nên có tên gọi là Tam niên sơn thành. Vào

thế kỷ thứ 5, khi Tam niên sơn thành được dựng nên, ở bán đảo Triều Tiên, Bách Tế(Baekje) và Tân La (Silla) liên quân để ngăn chặn Cao Câu Ly (Goguryeo) tấn công xuống phía nam, họ cần một thành trì kiên cố nên đã huy động một lực lượng lao động lớn để xây nên Tam niên sơn thành. Chu vi của thành khoảng 1,8 km, tường thành bằng đá phẳng, một tầng xếp ngang, một tầng xếp theo chiều dọc nên rất kiên cố. Chiều cao của tường thành thay đổi ít nhiều tùy thuộc vào địa hình, nhưng nó thường rất cao, trên 10 mét. Nếu so sánh với các sơn thành tương đối thấp của triều Joseon, dạng bao quanh đỉnh núi thì Tam niên sơn thành có thể gọi là một pháo đài. Do tường thành cao và lớn, tải trọng cũng rất lớn nên ở góc tường nơi chịu tải trọng lớn, người ta đã xếp đá theo dạng thang 4 tầng để gia cố nền móng. Tam niên sơn thành nổi tiếng là một pháo đài ngàn năm bất khả xâm phạm. Sơn thành tự hào với năng lực phòng ngự áp đảo 149 thắng 1 bại theo những ký lục chính thức được ghi chép trong sách sử. Không chỉ Bách Tế, mà ngay cả Cao Câu Ly (Goguryeo), quốc gia đã đánh bại nhà Tùy và nhà Đường, cũng thất bại trong việc đánh hạ thành này. Về sau, ngay cả Taejo Wanggeon của Cao Ly (Goryeo) đã mở trận công thành vào năm 928, là năm tại vị thứ 11 của mình để chiếm thành từ Hậu Baekje nhưng cuối cùng cũng thất bại. Lần bại trận duy nhất là vào năm 822, trong cuộc nổi dậy của Kim Heonchang, Kim Heonchang đã bại trận và thất thủ trong tay quân triều đình tại Tam niên sơn thành. Ghi chép lưu lại trong sách sử không quá một dòng, đừng nói là thành đã bị thất thủ như thế nào, mà ngay cả diễn biến của trận đánh ấy, cũng không một ai được biết. Đây là pháo đài bất khả xâm phạm đếm trên đầu ngón tay trong số nhiều thành trì của Hàn Quốc, nên có khả năng cao là người t rong nội bộ tạo phản nhưng đây chỉ là suy đoán mà thôi.

Như vậy, Tam niên sơn thành được đánh giá là pháo đài tiêu biểu được xây dựng bằng đá trong lịch sử của Hàn Quốc, tiêu biểu cho công nghệ xây dựng của Silla vào cuối thế kỷ thứ 5. Tam niên sơn thành cũng là một trong những sơn thành tạo nên cụm sơn thành nội địa Trung bộ, được đưa vào danh sách dự bị Di sản Thế giới của UNESCO. Hôm nay chúng ta đã cùng nhau dạo quanh Cheongju, Jincheon, Chungju, Jecheon và Boeun ở Chungcheongbuk, và say sưa với những câu chuyện đa dạng liên quan đến những địa danh này. Lần tới, chúng ta sẽ đến Daejeon và Chungcheongnam để tìm hiểu những câu chuyện quá khứ và hiện tại gắn liền với những địa danh này. Cảm ơn các bạn đã chăm chú theo dõi. Hẹn gặp lại trong các buổi học lần sau.